

우리 모두의 삶의 풍경이 바뀐 지 두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 분야도 변화에 적응해 가며 이제는 ‘비대면’ 방식의 취업 준비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는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재학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2004년 전국 최초로 취업 지원을 위한 전용 건물을 개관하고 ‘취업 교과목 개설, 면접 대처 능력 강화 프로그램,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캠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전국 대학 최초로 ‘취창업동기유발학기’를 시작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취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사회 수요 맞춤형 진로·취창업 교육 과정과 다양한 진로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재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취업 스토리북』은 여러 직종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우수한 취업 사례를 통해 먼저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선배들의 성공적인 취업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재학생이 취업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그간의 취업 노하우를 공개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양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리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거리 두기가 아닌 마주 보기가 가능한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 『취업 스토리북』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021년 개교 3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은 그간 ‘참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과 ‘가르쳤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교육 철학에 기반하여 학생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창의융합캠퍼스 이노비전센터에는 일찍이 ‘면접실, 이미지 메이킹실, 워킹룸’ 등의 취업 지원 부대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사회 진출을 위해 조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020.12.31. 기준)에서 취업률 74.8%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직장 건강보험 자격 유지 여부를 파악하는 ‘유지취업률’도 88.6%를 기록하여 취업 명문의 위상도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후배들의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졸업생 선배들의 생생한 취업 성공 경험이 담겨 있는 『취업 스토리북』을 제작, 재학생 누구나 취업을 위해 노력한 졸업생 선배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험을 글로 담아 준 졸업생 선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와 함께 많은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다른 취업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갈 재학생 여러분의 밝은 미래에 『취업 스토리북』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간절히 바라며, 『취업 스토리북』 발간을 위해 도움 주신 졸업생 선배 여러분과 학과 교수님, 그리고 취창업지원센터의 직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 1.

건양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장 송민선

단과대학별 취업 스토리

1. 간호대학	
• 간호학과	6
2. 의과학대학	
• 병원경영학과	11
• 안경광학과	16
• 작업치료학과	28
• 치위생학과	39
3. 의료공과대학	
• 의료IT공학과	44
4. 재활복지교육대학	
• 사회복지학과	56
• 심리상담치료학과	66
• 아동보육학과	71
• 유아교육과	77
• 중등특수교육과	88
• 초등특수교육과	100
5. 글로벌경영대학	
• 글로벌경영학부	106
• 금융학과	117
• 세무학과	128
6. 군사경찰대학	
• 국방경찰행정학부	138
• 군사학과	149
7. PRIME창의융합대학	
• 의약바이오학과	160
• 임상약학과	166

간호대학 | 간호학과

진심을 다하여

건양대학교병원 김OO

목표 설정의 중요성

학과 수석을 비롯해 4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녔던 나는 계획하고 목표 세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1분 1초 단위로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싶어 한다. 졸업 후 간호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

나는 간호학과라는 특기를 살려 의무병으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복무했다. 깊고 험난한 산지에 부대가 있었던지라 병원급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앰블런스로 약 2시간 정도 산을 타고 내려와야만 했다. 그런데 훈련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가 발생해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응급 상황이 발생됐다. 즉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구급차 안에서 최대한의 처치를 하면서, 안전하면서도 신속히 대학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했다.

환자 옆에 있었던 나는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저 깊은 산지를 내려오느라 덜컹거리는 환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주는 게 전부였다. 오랜 임상 경력의 군의관님이 계셔서 환자는 무사히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그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물 흐르듯 지내면서 학부 생활을 보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언제 어디서든 환자분들에게 내가 ‘쓰임이 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목표가 정해진 순간, 나의 대학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반복의 노력

나는 이해력과 기억력이 부족해 학습 속도가 늦은 편이다. 그래서 반복하여 복습하지 않으면 배운 내용들을 금세 까먹는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는 남들보다 일찍 공부를 시작하고, 그들이 다 끝내고 나갈 때 늦은 시간까지 남아 한 자라도 더 반복해서 보려고 노력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반복해서 그 내용을 공부했기에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철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다고 생각하며 공부했다. 흥미가 없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꽤나 애먹었지만 정성을 들여 꼼꼼히 반복하여 복습했고, 공부한 내용들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둘씩 쪼여 점점 커지고 넓어지게 되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나는 낮가림이 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다.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해 매일같이 끌려다녔다. 그런 성격인 데다 발표 공포증까지 있어 발표 강의가 주를 이루는 과목이 있으면 학교 가는 길부터 피곤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식은땀은 물론,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 밤새도록 외웠던 대본이 기억나지 않아, 국어책 읽듯 발표를 하다가 내려온 적도 많다. 그러다 보니, 조별 과제 시 발표자를 선정할 때마다 무엇이든 다 할 테니 제발 발표만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 위축되면서 점점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나 도망만 갈 일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되면 환자분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에 의사소통의 연장선에서 ‘발표’는 꼭 내가 이겨 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 내어 발표를 한 번, 두 번 자원하기 시작했다. 미흡하게 발표했던 날에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 나 자신을 칭찬해 주고, 다음 발표 때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발표를 준비했다. 반복된 시도와 노력으로 발표 실력은 점차 늘었다. 대본 없이 절대 못할 것 같았던 발표였지만 어느새 나는 대본 없이 발표를 하게 되었고, 대본을 보느라 정신없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청중들의 눈에 머물렀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를 바꿔 줄 사람은 절대 없다. 변화를 원한다면, 나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빛나는 도전

3학년 때 성적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아산병원 인턴십을 다녀온 적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학과 학생들이 팀을 이뤄 실습을 하고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본 다음, 본원 관계자분들 앞에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극적 성격인 나에게 인턴십은 큰 도전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이들과 인턴십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참가에 깊은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고민은 길지 않았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도전이 두려워 참가를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나는 똑같이 주저할 것 같았기에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걱정을 가득 안고 인턴십이라는 도전에 뛰어들었지만, 지난날 ‘반복의 노력’들이 쌓여 인턴십에서 빛을 발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과목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반복하면서 진심을 다해 공부했다. 부족한 내용은 도서관에 남아 서적을 읽어 보거나 논문을 검색하며 채워 나갔다.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았던 발표 또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실력을 늘려 나갔다.

결론적으로 인턴십에서 시행한 시험은 무난하게 통과했고,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해 나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본원 관계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팀원 대표로 간호부장님께 표창장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끝낼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들을 듣고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도전’ 앞에 나는 이전보다 한 단계,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도전의 성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도전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나는 그 ‘시도’를 통해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도약을 위한 준비

4학년 때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학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4학년 때 배우는 과목 수는 이전 학년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깊고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지만, 나는 쉽 대신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심장에 관심이 많아 4학년 때는 학부 공부를 병행하면서 중간중간 짬을 내서 공부했다. 기초 생리학부터 병리학, 그리고 심전도까지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던 건 심장이 유일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나는 올해 3월부터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중환자실 입원은 환자 일생에서 가장 위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

올해 5월,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이 계셨다. 혈액 투석을 성공적으로 받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면 되는 분이다. 투석 후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환자분께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다. 처음에는 ‘불안’에 의해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이셔서 심장 쪽 문제를 배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환자분께 증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다. 정리

하자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저리며, 이 양상이 등 쪽과 왼쪽 팔로도 지속적으로 뻗어 나가며 가장 안 아플 때 점수를 0점, 죽을 것같이 아픈 점수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9점’이었다.

나는 바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환자분의 증상을 알렸고, 이내 곧 환자를 보러 중환자실로 내려오셨다. 주치의 선생님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 동맥에 협착이 온 것 같으며 심장 관련 혈액 검사 및 기타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심장 전문의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했다. ‘관상 동맥 질환 고위험군으로서 시술을 통한 현재 상태 평가 시급’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바로 그다음 날 시술을 진행하셨다. 예상대로 관상 동맥의 일부분이 협착되어 있었고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히 시술을 진행해 협착 부분을 개통할 수 있었다. 그 후 환자는 혈액 투석을 무사히 마치고 가슴 통증 없이 일반 병동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다.

4학년 때 심장 파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 나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환자분의 증상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아는 것이 많아야 환자분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해 건강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계속 스스로 찾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성공적인 도약

4년 학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내가 꿈꾸던 간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뗀 지 약 8~9개월이 지났다. 지금도 나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고 있다. 부서 동기, 선배 간호사 선생님,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모르는 게 있다면 항상 물어보고 배운다. 배움을 통해 하나하나 지식을 얻어 가면서 언제 어느 날 환자분께 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의 성공적인 취업,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생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의과학대학 | 병원경영학과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OO

목적지를 모르는 후배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목표를 잘 세우고 준비해.”라는 말을 흔히 들어 보았을 것이다. 고등학생 시절 연기자를 선망하여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던 내가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서울 부민병원의 신사업팀에서 IT서비스 전략 기획자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홍보전략팀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물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나는 뚜렷한 목적지를 정하고 직진한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대학을 다니면서 남들처럼 토익, 컴활, 전공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스펙을 쌓는 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미리 해 둘걸’ 싶지만. 나처럼 목적지를 몰라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후배들에게 색다른 조언을 해 주고 싶다. 기회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목적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당장 시작하라

나는 3학년을 마치고 건강 문제로 1년 휴학을 했다. 복학할 무렵 갑자기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대면 수업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다들 취업 나갈 준비를 하는 반면, 나는 돈이나 벌어 볼까 하고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적였다. ‘그래도 이왕이면 전공이랑 관련된 게 좋겠지?’ 하며 보다가 “의료 애플리케이션 오류 검수자를 구합니다”라는 공고를 발견했다.

직무 관련 전공자라 바로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을 했는데, IT스타트업 회사인 줄로만 알았던 그곳이 사실은 서울부민병원 신사업팀이었다. 내가 검수할 앱의 메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본인의 증상 선택 - 증상 선택과 관련된 질문에 답 - 알고리즘을 통해 의심 질환 도출 - 해당 질환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추천]이었는데, 학교에서 질병분류와 해부학, 병리학을 배우고 와서 자신감이 넘쳤던 나는 열정을 쏟아 내며 오류들을 찾아내고 검수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달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뭐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진심은 당게 되고, 설령 당지 않았도 하더라도 분명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넓어질 기회의 장이 넓어질 것이다. 변변치 않은, 정식 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여도 괜찮으니 당장 시작해 보길 바란다.

Value up

모두들 그렇듯 취직만 하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무별 업무 분장이 명확히 세분화된 굴지의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업무의 경계는 항상 모호하다. 부서의 장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어필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일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능력치의 200%를 끌어올려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야 그럴싸한 루틴한 직무들이 주어진다. 나도 약 한 달간은 ‘이렇게 일차원적인 일만 하다가 도태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계 같은 일만 했다. 난 분명 필요에 의해 뽑혔지만 아르바이트 시절의 존재감 그대로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오류 검수를 하면서 수천수만 번 앱을 구동해

본 나는 매주 진행되는 아이디어 회의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나의 열정과 능력을 알아본 상사들은 언론 홍보, 투자사 IR, 서비스 전략 기획 등의 업무에 나를 투입시켰다. 누군가 업무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런데 번듯한 업무가 생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회사가 나를 계속해서 꼭 필요한 인재, 유능한 직원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내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앞서 투입된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스킬이 필요했다.

IT 관련 부서이다 보니 그래픽 디자이너, ui/ux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분들이 계셨고, 그분들께 부탁해 퇴근 후 한두 시간 정도를 투자해 디자인을 배웠다. 어도비 포토샵, 일러, 어피니티 포토 등의 기초적인 디자인부터 앱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그려 내는 SKETCH, 그리고 PPT보다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키노트까지 여러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추려 앱 가상 구현 이미지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경영진에 내 기획을 직접 보고하고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감사한 일도 생겼다. 내친감에 언론 홍보 업무도 본격적으로 배워서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 되었다. 6개월 만에 원하는 연봉으로 협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난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올려 나갔다.

Be a Specialist

입사 8개월 차로 접어들면서 나는 의료 서비스 업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했다. 다만 내가 일하던 곳은 신생 부서,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스타트업과 같은 곳이었기에 한 사람이 부담하는 업무의 영역이 매우 다양해서 나는 Specialist보다는 Generalist에 가까웠다. 특히나 앱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의 특성상 요즘 용어로 ‘떡상’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서비스가 대박 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실력을 인정받던 회사를 떠난다는 것과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을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 때마침 이화의료원 홍보전략팀의 공고를 발견했다. 더 세분화된 직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했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화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언론홍보 쪽의 경험이 있어 백업이 가능하면서, 메인 업무로는 유튜브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모두 가능한 자’였다.

유비무환

원래 경력은 취직에 있어 순기능을 하는 요소이지만, 나처럼 1년도 넘지 않는 경력을 가지고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것은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략기획과 홍보전략은 엄연히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들어올 공격들에 미리 대비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직 사유, 홍보 업무란, 본원 홍보 방안, 당장 투입 가능한 업무’ 등 큰 틀을 잡아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게 예상 답안을 활용하여 대답할 수 있게 준비했다. 특히 답안의 마무리를 전부 ‘나의 경험 → 본원의 발전에 기여’로 짜서 내가 8개월간 쌓아 온 경험이 휴지 쪼가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했다.

실제로 면접 때 직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들어왔고, 나는 “전략 기획 쪽에서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던 것들이 의료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나의 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면접이 끝나고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습관은 전공 때 토론을 하는 수업이 많아서 저절로 길러진

습관이다. 특히 의료관계법규 수업 때, 법안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사람들을 멋지게 설득해 내고 싶은 마음에 자료 준비, 발표 등을 미리 열심히 연습했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최선이 목표를 만든다

실제로 나는 이화의의료원 홍보전략팀에서 전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200% 활용하고 있고 영상편집도 열심히 독학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포토샵, 일러 자격증도 준비 중이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쪽으로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얼추 감이 오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목적지가 잠실인데 내가 타야 하는 길이 올림픽대로구나.” 정도.

이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목적지가 확실치 않더라도 때사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나를 알아 가면서 저절로 목표가 구체화된다.

그리고 병원경영학과는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 취업하는 타 의료 계열 학과와 달리 취업의 폭이 보다 넓기 때문에 선택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동기들, 선후배들이 당연스럽게 원무과를 많이 선택하곤 하는데 나처럼 이런 진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4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자격증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스펙 관리에 조금 더 힘썼더라면 분명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에 휩싸여 조급해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 뭐라도 해 보자.

의과학대학 | 안경광학과

취사선택 (取捨選擇)

(주)스타비전 김OO

클러치(Clutch)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거나 이어 주는 축이음 장치로, 축과 축을 접촉하거나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청년 취업난 혹은 코로나19 취업난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의 취업 스토리를 솔직담백하게 적어 내려가고자 한다.

어떠한 전공으로 내가 먹고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학과를 알아보던 중, 안경사를 하고 계시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안경광학과를 추천받았다. 이름만 보면 안경만 생각나고 큰 이끌림은 없었지만, 이수 교과목 및 커리큘럼, 진로 등을 찾아보고 사람들의 안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보고 매료되어 안경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겪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변환점이라고 생각한다. 1학년 때는 전공보다는 컴퓨터, 기초교양 등의 과목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주변 동기들과 동아리 활동 등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다. 2, 3학년 때는 본격적인 전공 공부와 임상실습으로 인해 정신없이 지냈고, 이후 군 휴학으로 2년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복학을 하여 4학년이 되고 나서는 안경사 국가시험 준비로 바쁘게 지냈었다.

돌이켜 보면 안경사 면허증 취득 이외의 별다른 강점이 없던 나였지만, 학과의 교육 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 결과 현재 취업을 해서 어엿한 안경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했는지 묻는 친한 후배들에게서 내 대답이 도움이 되었다는 한마디는 정말 뿌듯하다. 여기에서는 후배들에게 각자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 및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적응하는 노력

어느 회사를 입사하거나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함께하는 팀원이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초반에는 적응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의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단순하게 생활했다. 주어진 틀에 나를 맞춰 끼워 가던 나는 더 넓은 시야를 위해 졸업하신 선배님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VISCREAT이라는 창업동아리를 결성하여 황사 방지용 안경테를 디자인하고 공부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 스마트리더라는 건양대학교 홍보대사로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파트너십트레이닝장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모전에 나가 본 적도, 큰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본 적도 없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의 가능성, 나만의 길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든지 자신이 놓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판단하였으면 좋겠다.

미리 생각하고 상상하라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는 상상을 해 본다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에 더 적

극적으로 임하고 많은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나는 취업에 성공한 뒤에 과거에 해 보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도 “가끔 만약 내가 ~을 했다면?”이라는 가정을 자주 세운다.

돌이켜 보면 안경사 국가고시만을 바라보고 남들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다 할 큰 수상 경력이나 경험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스타비전이라는 회사 소속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부족한 점들을 깨달았다. 이외에도 여러 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면접 당시 관련 업종의 인턴 및 홍보대사 경험 및 다양한 봉사 활동 이력을 갖춘 경쟁자를 보며 감탄했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오렌즈 비전센터 홍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부족과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하지 못해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다. 렌즈 전문점에서 근무를 한 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에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미래에 대해 확실하지 않아서 시간을 핑계 삼아 미루기 바빴고 결국 국가고시에만 전념했다. 그 결과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아 직장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전공 교과목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좋은 취업을 원한다면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상상해 보아라.

도전과 값진 경험

어느 한 부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 대학교 3년까지 쉽 없이 달려온 나에게 선택의 순간 약간의 정체기가 있었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하고 제대 후 복학 전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이해하고, 공부해 보

고 싶었던 중국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시험공부도 좋지만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휴식이 될 것이며, 원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임상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 오렌즈 홍대점에서 두 달 동안 근무를 했었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던 나는 병원, 연구소, 매장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나에게 맞는 업무와 맞지 않은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기간은 대학 4년 중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 현재 학교 후배들에게는 진로 및 국가고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안경사로 근무하면서 경험이 많은 센터장님께 많은 조언을 얻고 있다. 사회 초년생인 나는 앞으로 전문적인 안경사가 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하며 후배 안경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진다.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본인 몫이다. 만약 지금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다면 성공과 실패를 고민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라. 그 또한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취업 결정을 이끈 흥미

모든 구직자들은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 기재한 것처럼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잘 몰랐다. 4학년 2학기가 되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경사 국가시험만 바라보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더 먼 미래를 보려고 결심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람인', '아이오프트' 등 각종 사이트를 자주 검색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의면접과 취업설명회를 통해 더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다. 마지막 학기가 되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모의면접 참여로 부족한 점을 파악했으며, 당장 해야 할 것을 중요도에 따라 나누고 계획하기 시작했다. 개선해야 할 면접 스

킬은 피드백을 통해 고치려 노력했고, 자기소개서 또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다. 덕분에 1, 2차 전형에서 나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스마트리더로서 사람들을 응대할 때, 시력검사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경험이 임상안경사를 취업 진로 목표로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오렌즈라는 렌즈 전문 브랜드에서 전문안경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으며, 이전의 경험을 살리면 더욱 가치 있는 안경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사 지원을 결정했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졸업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취업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며, 아직 취업처를 정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서 늦은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뒤쳐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라 생각한다.

나 역시 주변 친구들에 비하면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서는 지금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장 벅차다면 잠시 쉬어 가도 괜찮다. 다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해 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미래를 위한 가속도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늦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과거에 머물렀다면, 이 글을 쓰는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 롤 모델인 ‘스티브 잡스’는 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한다. 실패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만의 3원칙을 만들었고, 지금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3원칙은 ‘1) 어떤 일이든 성실히 수행하며, 2)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3) 역량에 맞춰 행한다.’이다.

나의 스토리는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스토리 제목처럼 ‘취사선택(取捨選擇)’이다. 이 글을 보는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

응하고, 생각과 상상을 통해 직접 경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위한 성공 스토리나 학교의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이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자신을 인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자랑스러운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의과학대학 | 안경광학과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 준 성공

한국알콘 박OO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기

부푼 꿈을 안고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나는 '누구보다 특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학년 시작과 동시에 용기를 가지고 학년 대표에 도전했고, 그런 자신감을 알아봐 준 동기들이 나에게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해 준 결과 과대표로 뽑히게 되었다.

아직은 모두 초면이라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감들기도 하고, 처음 맡아 보는 과대표라는 직책에 책임감도 가져야 해서 조금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과 일에 성실히 임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하다 보니 한 명, 두 명, 점점 많은 동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 주었고, 이를 본 선배님들도 조금씩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기들과 선배들이랑 두루두루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1학년 1학기를 과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후 맞이한 첫 여름 방학에는 '아르바이트, 여행 등 계획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1개 정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여름 방학 기간에 건양대학

교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3D 프린팅에 대해 배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배워 보기로 마음먹었다. 방학 동안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안정업계 분야에서도 3D 프린팅이 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봤다.

이처럼 나는 재학 시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홈페이지, 학과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도전하였고, 이런 끊임없는 도전은 1학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다양한 경험은 스스로 찾아서 하기

1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대학교 2학년이었다. 개강과 동시에 놀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컸지만, 한편으로는 동아리 활동과 학과 학생회 활동을 해 보겠다는 작은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하나씩 이뤄 보기로 결심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붙임성이 좋은 나는 등산동아리, 봉사동아리(라이트엔젤)에 가입하여 다른 학과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학과에서 진행하는 검안봉사에도 참여하면서 안경광학과에 대해 점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학과 선배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나는 좋은 기회로 학생회 임원이 되어 학과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경험도 두루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캄보디아 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학년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앞에 나서서 학생들에게 검안과 안경 조제 방법 등 전공 관련 실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며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과연 말이 통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공통점을 찾고 간단한 대화를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10일간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도 보람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평탄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에 마음속의 열정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일

이 생겼다. 다른 보건 계열 학과와 마찬가지로 안경광학과도 3, 4학년 상급생이 되면 병원이나 안경원 등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듣자마자 ‘와! 독일 실습은 진짜 꼭 가고 싶다. 다른 친구들과 차별성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강하게 박혔고, 선배 중에 독일 실습을 다녀온 분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선배 한 분이 독일 실습을 가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더더욱 의지가 활활 타올랐다.

임상실습 담당 교수님께서 독일 실습 지원자 모집 공지를 하셨지만, 낯선 나라에 혼자 가서 지내야 하는 데다 모든 경비는 지원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기에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도전했고, 그 결과 독일로 실습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니 ‘영어 실력’과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아르바이트로 경비를 모으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는 등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이겨 내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그 후 독일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독일의 안경 처방 시스템, 콘택트렌즈 온라인 주문 가능 시스템 등의 차이점도 알 수 있었고, 실습 지도 담당 검안사분께서 다양한 환자들의 눈 사례도 보여 주셔서 학교에서 수업으로 듣던 과목들을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시 환자, 안구건조증 환자 등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고, 포롭터와 세극등현미경을 환자한테 사용하는 것과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콘택트렌즈 처방을 받는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콘택트렌즈는 젊은이들만 많이 착용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어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나는 다양한 활동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 봤지만, 나처럼 실제적으로

나서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과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서 내부 및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꼭 말해 주고 싶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기

3, 4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한 틀이 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나는 주변 친구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은 상태였다. 보통 안경광학과를 졸업하면 안경원 또는 안과 두 분야로 취업의 길을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취업 진로 분야보다는 관련 기업체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었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찾아보았다.

그 결과, 아큐브, 알콘, 인트로조, 바슈롭, 쿠파비전 등 콘택트렌즈와 관련한 5개의 글로벌 기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알콘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알콘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진 회사인지에 대해 알아 가며 인턴십 지원을 준비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인턴십 경험이 있는 선배님의 조언과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최종으로 선발되었다.

대전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경험을 하고 싶었던 나는 외가댁이 있는 부산 지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100개가 넘는 안경원에 한 달 동안 꾸준히 방문하여 알콘 렌즈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리마인드시키는 활동을 했다. 업무를 하면 할수록 알콘이라는 회사에 더욱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직접적으로 인턴을 도와주시는 영업사원분들과 안경원 원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차차 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알콘 인턴십이 끝날 때쯤에는 활동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영업직이 딱인 것 같다

는 확신이 들었다.

그 이후 교수님들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 나갔고, 알콘의 입사 공고가 뜨면 바로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IACLE 국제 콘택트렌즈 인증 자격증 준비와 안경사 국가고시 준비에 집중하였다. 콘택트렌즈 분야로 진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나서는 어떤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기 쉽고 동기 부여도 확실히 되었기에 목표 설정을 꼭 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 병원에 취업해서 근무해보니 환자를 치료하는 일 외에도 전산적인 업무 및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작업이 많았다. 엑셀,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것 또한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나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후배들은 방학 동안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신의 역량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탄탄한 준비 + 열정 = 성공

입사 공고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드디어 알콘 영업사원 지원 공고가 뜬 것을 확인했다. 나는 알콘이라는 회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뻐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였다. 1차 지원은 자기소개서 제출이어서 온 힘을 다해 정성껏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교수님과 취업 상담 선생님께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였다.

이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 1차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2차 면접 일정을 안내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Alcon'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뜨겁게 했고, 간절하게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면접이 끝난 며칠 후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고 믿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아직 국가고시도 치르기 전인데 학과에서 첫 번째로 조기취업이 되어 더욱더 뿌듯하고 영광스러웠다. 많은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축하해 주셨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여 국가고시를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다.

2019년 12월에 한국알콘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나는 지금 현재까지도 만족하면서 끊임없이 목표를 세워 가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은 4학년 때 급하게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나 진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맛보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아가면 좋겠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학점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부 및 외부 활동을 직접 찾아 하면서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꼭 찾길 바란다.

의과학대학 | 작업치료학과

다양한 경험으로
만드는 나만의 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OO

다양한 진로 중 연구원을 택하다

현재 나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또한 생소했고, 작업치료학과 학생으로서 연구직이라는 진로는 생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의 연구직 취업 경험과 연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취업을 준비하며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서 내가 연구직을 가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입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 수기가 진로 고민이 있고 연구직이 궁금한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처음 작업치료학과로 진학할 때는 막연하게 병원에서 일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입학하였지만, 학과생활을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들 작업치료사라면 떠올리는 성인, 소아 등의 임상치료사뿐만 아니라 정신, 치매, 공공기관 취업, 연구 등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넓었다.

학부 공부를 하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겼는데, 학과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진로에 대해 실습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어 그 기회를 통해 취업 분야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연구직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었다. 나는 학부 공부를 하며 배우는 것들, 전공책의 내용들, 치료의 근거 등 활용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연구로부터 축적된 지식들의 결과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연구직을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원 취업을 위한 준비

나는 학부 시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흥미 분야와 적성을 찾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과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보건소 작업치료교실 활동에 참여하였고, 수업의 일환으로 케이스 프로젝트와 방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4학년 실습은 무산되었지만, 3학년 실습으로 대학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공부하였으며 학부 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정신건강 서포터즈 활동, 독거노인 치매 예방 방문 프로그램, 인지 향상 작업치료 교실 등에 참여했다.

상기 내용들만 보아도 참여한 프로그램의 유형이 다양하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준비된 인재가 되고자 했고, 진로 결정의 순간에 발목 잡히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연구원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은 단연 연구 관련 활동이었다.

참여한 활동은 크게 논문 작성과 연구 진행의 두 가지이다. 학과 3학년 수업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어 관심 분야가 비슷한 동기들과 함께 지적장애 아동의 작업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 논문을 작성해 학회지에 게재하였고, 학생연구조교에 지원하여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연구 활동의 경우 연구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중재 기획, 연구계획서 작성과 IRB 신청부터 중재 진행,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이끌어 가며 연구의 흐름에 대해 익힐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직무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됐다.

학부 시절 연구와 관련된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은 줄로 안다. 운 좋게 작업치료학과 학과 과정 중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논문 작성은 연구소

취업뿐만 아니라 병원 취업에도 성실성을 보일 수 있어 도움이 되므로 이왕 작성해야 하는 것, 1저자로서 논문을 작성해 좋은 학회지에 투고해 보면 좋겠다.

물론 투고 후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력 있는 연구원들의 논문도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부생의 논문은 그보다 더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 학회지에서 게재 불가 답변을 받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논문을 수정해 계속해서 투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소서 첨삭, 면접 준비 등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받고, 친구들과 함께 모의면접을 많이 해 보며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것을 추천드린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지금은 그 과정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학과 생활만 해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논문과 연구까지 맡아서 하려니 힘에 부쳤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과정들을 마주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것저것 하려는 것이 욕심인가 싶었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의 활동들 덕에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열심히 구르며 배웠던 것들 덕에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멋쟁이인 사람은 없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다독여 주길 바란다.

연구원 A to Z

연구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와는 다른 일을 한다. 학교에서 나간 대학 병원, 재활병원, 센터 등의 실습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인다는 걱정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선뜻 연구원의 길을 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내가 일하며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연구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그중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연구를 새로운 결과의 도달과 사실의 확립을 위해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연구의 정의가 말해 주듯 연구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거나, 연구 주제를 찾아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즐거운 분들께 연구직을 권해 드리고 싶다. 더불어 연구직은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수라고 여겨지고 자신만의 연구 방향을 설계해 가야 하는 만큼 공부에 흥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연구에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내가 속해 있는 보건의로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리고 보건의로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연구 갈래들이 있고, 그 분야를 정하는 것은 온전히 본인 몫이다. 잘못하면 흥미 분야와 전혀 동떨어진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취업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자신의 전공이 맞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글을 쓸 일이 정말 많다.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연구 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그 안에서 환자들의 평가 결과,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수치들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므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간단하게는 메일이나 회의록 작성부터 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나아가 논문까지 다양한 글을 써야 한다. 어떤 연구든 분석은 기본이고 나 또한 데이터분석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부 통계 수업을 주의 깊게 들길 바라며, 연구원과 문서 작성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

그리고 재활 분야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가 많아 스케줄 조율 등 연구 진행을 위해 대상자와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 특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성향과 비교해 보면 좋겠다.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나의 대학 생활과 연구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말머리에 쓴 것처럼 진로와 관련해 고민하는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길 바란다. 내가 위에서 학부 시절에 했던 취업에 도움이 된 활동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고시 합격이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되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말고, 대학 생활하며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쟁취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쟁취하시면 좋겠다. 많은 활동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학 생활이 취업 전에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만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장단점과 성향을 파악하길 바란다.

연구원은 임상가에 비해 비교적 시간 운용이 자유롭고 신체적인 업무 강도는 낮지만 그만큼 남는 시간을 잘 운용해서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어느 길이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정답이므로 직업군의 특성을 잘 비교하고 충분히 숙고하신 뒤에 희망하는 곳에서 재밌게 일하시면 좋겠고, 속도의 차이일 뿐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취업이 늦어진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가온 기회를 잡아 본인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의과학대학 | 작업치료학과

다가온 기회는
반드시 경험으로

대전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최OO

본격적으로 이런 글을 작성하려니 굉장히 어색하고, 또 어떤 말을 해 드려야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지만, 4년 동안의 학과 생활과 취업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짧게 적어 볼 테니 쉬엄쉬엄 읽어 보시길 바란다.

늦게 선택했던 진로

작업치료에는 노인, 성인, 아동, 정신, 치매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치료를 위해 보통 3학년 때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노인이면 요양병원 위주로, 아동이라면 아동발달센터 위주로 취업처를 알아보고 준비하게 된다. 사실 나는 4학년 말까지도 어떤 분야로 나가야 할지, 길을 정하지 못하고 내내 고민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말이었다.

국가고시 모의고사를 보는데, 유난히 정신과 작업치료 영역은 문제도 잘 맞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흥미가 생겼다. 큰 이유도, 누군가의 제안도 아니었고 그냥 ‘정신

과 문제를 많이 맞네. 정신과에서 일해 볼까?’ 하는 생각에 정신과로 진로를 정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단순한 이유로 선택했던 것 같다. 11월쯤 마음을 먹었고 이후 국가고시와 자소서, 면접 등 취업 준비를 함께 준비하여 해가 넘어가는 2021년 1월 1일자로 취업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준비했음에도 이렇게 취업을 하여 수기까지 작성하고 있으니,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말고 눈앞에 놓인 과제나 시험, 자격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보는 건 어떨까? 사실 걱정만 매일 해서 는 해결되는 게 없다. 그저 나의 주어진 역할에 진심을 다한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국가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다 진로를 정한 것이니 말이다.

다가온 기회는 반드시 경험으로

수기의 제목이자 핵심 내용이다. 취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다 보니 전공만 잘한다고 유능한 사원이 되는 건 아니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각종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편집,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카드뉴스나 이미지 제작, SNS 활용 등등 전공 업무는 기본이고 그 밖에도 많은 능력들이 필요했다. 대학 생활은 이런 경험들을 해 보고 숙지하기에 딱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일이터라도,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끝에선 ‘나의 경험’이 될 것들이 분명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기회가 생겼다면 잡자! 일단 잡아 두고 차근차근 해 나아가면 된다.

새로운 일에, 흥미 있는 일에 거침없이 뛰어들어 보자.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 좌절감을 빨리 떨쳐 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게 있어서 이 힘은 많은 기회를 잡고 경험을 해 보며 자연스럽게 길러졌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면,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됐을 거야.’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뻔뻔하고 강단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학교생활을 할 때 학과 임원을 자주 맡았다. 1학년 때는 과대로, 2학년 때는 부학회장으로, 3학년 때는 학회장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수님들과 과도 가까워지고 다른 선배, 후배, 동기들과도 연락하고 만날 일이 잦았고, 학업과 병행하려니 당연히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들도 많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는 늘 ‘이것도 모두 경험’이라 생각하며 버텨 왔던 것 같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애쓰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였는지,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 교수님들께서도 공모전이나 봉사 활동, 연구실 학생 조교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 활동 등을 많이 추천해 주셨다.

학과 생활에 충실하면 충실한 만큼 돌아오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귀찮고 부끄럽더라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학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일하면서 배우는 법!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왜 잘하지 못하냐? 답답하다.’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나는 얼굴에 첩판 깔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해 보든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요령이 생기고, 나만의 방법이 생기며 한결 수월하게 학과 일을 할 수 있었다.

학교 프로그램은 최고의 서포터

많은 분들이 취업을 위해 대외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다. 이력서에도 적어야 하고,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밑거름이 될 테니까. 하지만 나

는 학과 생활을 하며 대외 활동을 자주 하지는 않았다. 물론, 학과 일이 바빠서 못 했던 것도 있지만. 대신 교내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모전을 활용했다.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는 방과 후 일본어 수업을 들어 학과 일본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오기도 했고, 교수님과 함께 박물관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을 다녀와 수기를 작성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기초 과학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오른 것을 바탕으로 교내 성적 상승 공모전에 접수하여 또 장학금을 받았다. 4학년 때는 모의면접과 학생처에서 진행했던 자소서 첨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기 전에 완성해 둘 수 있었고, 취업 준비는 한결 수월해졌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나 행사가 생각보다 많다. 그만큼 장학금도 쏠쏠하게 받을 수 있다. 나는 학과 임원이나 공모전 행사를 통해 받은 장학금으로 교통비나 식비 등 용돈으로 요긴하게 잘 사용했다. 이런 행사나 공지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올라와 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던 것도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며 여기저기 구경했던 일이 밑바탕이 된 것 같다. 취업 공고나 교내 근로장학생 공지들도 학교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니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보기길 바란다.

백지 공부법

작업치료사는 보건복지부 면허 자격이라 국가고시를 응시한다. 국시를 준비하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백지 공부법이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 같다. 말 그대로 백지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적고, 전공 교과서나 문제집을 펼쳐 빠진 개념이나 내용들을 채우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방법이다. 사실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백지를 마주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아는 게 없으니까. 수업도 나름 열심히 들었던 것 같고, 복습도 한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바짝 하고 흐지부지되어 버려서 별로 남는 내용이 없었다.

4년 내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후회했던 것 같다. 복습 좀 열심히 해 둘걸! 공부 좀 일찍 시작할걸!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후회되는 마음을 얼른 접고 뭐라도 시작해야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백지를 일단 꺼냈다. 막막해도 단어 한두 개 정도는 기억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럼 적는다! 그렇게 쥐어짜고 짜내서 뭐라도 끄적여 보는 것이 시작이다. 그 뒤는 전공 서적을 펼치고 큰 단원별로 나누고, 다시 소단원별로 나눠 핵심 키워드를 적어 보면 된다.

사실 첫 장은 거의 베껴 쓰는 정도일지도 모른다. 내가 늘 그랬다. 하지만 한번 정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음 백지에서는 처음 작성했던 백지보다 조금 더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나는 학과 시험을 공부할 때 2~3주 전 백지 공부법으로 시작해 하루 두 장씩은 써 보려고 노력했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양 과목이었고, 전공 개론이나 해부학 같은 암기 많은 과목에서도 꽤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막막하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백지 공부법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국시 모의고사를 혼자서 볼 때도 문제집이나 시험지에 직접 풀지 않고, 연습장을 옆에 두고 답만 적으며 시험지는 깨끗하게 남겨 두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n회독’이라고 한다. 여러 번 돌려 보는 것을 말한다. 연습장에 답을 쪽 기록하면 채점하기도 쉽고, 시험지나 문제집은 답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 답을 잊을 때쯤 다시 풀어 보면 좋다.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사용했던 나의 국시 문제집들은 후배에게 물려줬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열심히 취업 수기를 작성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내가 학부생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좋았을걸...’ 하는 마음으로 적었다. 여러분께서

간지러워하는 곳을 긁어 주지는 못해도 그 언저리라도 긁어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다. 공부법부터 취업 준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방법들에 정답은 없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일의 내가 힘내 줄지 몰라도 오늘의 나는 유일하니 말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고민도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 나의 할 일,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그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멋지게 여러분의 꿈을 이뤄 사회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파이팅!

의과학대학 | 치위생학과

느린 것을
두려워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안OO

조금은 늦은 시작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나의 얘기를 써 보려 한다.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글 쓰는 게 조금 민망하지만, 그냥 학교 선배의 흔한 취업 얘기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2016년도에 20살의 나이로 대학을 입학했다. 처음부터 치위생학과로 입학한 것은 아니었다. 특정한 목표가 없었던 나는 그저 성적에만 맞춰 지방 국립대에 서 공학 쪽을 전공하였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를 다니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학점만이라도 잘 받고자 공부를 하였지만 너무 흥미가 없었던지라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항상 교양 과목만 성적이 괜찮게 나올 뿐 전공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휴학할까도 많이 고민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휴학을 하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까 두려워 휴학을 하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과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전과에 대해 알아보다 편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2년 동안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편입이 가능하다 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보건 계열에 관심이 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고, 치위생학과가 전망도 좋고 평소 치아에 관심이 많았기에

치위생학과를 목표로 편입을 준비하였다. 건양대학교에 지원을 하였다가 마지막으로 추가합격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편입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총 5년이나 했고 시작이 남들보다 조금 늦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운 좋게 졸업한 해에 대학병원을 붙게 되었다. 그간 어떻게 준비했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최선을 다했던 학교 공부

편입을 하면 그 전에 다녔던 학교의 교양학점이 인정되어 치위생학과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지만, 전공학점을 모두 채워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서 학점을 가득 채워 들어도 3년을 다니게 된다. 4년 동안 이수할 학점을 3년 안에 채워야 하다 보니 1~4학년 수업을 섞어 듣게 되는데, 기초가 없던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편입을 왜 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 수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이번만큼은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와서 그날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표를 쳐 놓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여쭙보아 궁금증을 해결했고, 여유가 있는 날에는 그다음 날 수업할 부분을 미리 예습했다.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니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 복습할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 공부를 할 땐 단순 암기보다 이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과정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국가고시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과목 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할 텐데, 나 같은 경우는 복습할 때 그 과목의 복습 노트를 만들었다. 나중에 국가고시 공부할 때 교과서를 다 볼 필요 없이 내가 복습한 노트로만 공부했더니,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도 잘 가서 더욱 안성맞춤이었다.

스펙은 다다익신!

자격증이나 교육 사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게 스펙 아닐까. 내가 후회하는 게 있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 했던 점이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한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3D 구강스캐너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언제 써 보나?’ 했는데 지금 병원에 보철과로 오게 되면서 매일같이 쓰고 있다. 학교에서 한 번 배웠던 건데도 바로 응용할 줄 알아서 나도 놀라고 같이 진료하시는 선생님도 놀라셨다. 그만큼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다.

이외에도 토익, 한국어,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 등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좋다. 이 건 굳이 한쪽 분야의 직업이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든 기본적으로 보는 공통분모라고 생각한다. 사회인이 된 난 지금도 다양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일하면서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추천드린다.

내가 만약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방학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이 끝나면 재밌게 놀고 또 취업 전에 면접도 같이 준비해 보는 취업 스터디 동아리를 만들 것 같다. 혹시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보단 여럿이서 하는 게 정보도 많이 알 수 있고 의지가 된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취업은 어떻게?

대학병원이 꿈이었던 나는 공공기관 사이트인 알리오나 사람인 같은 곳을 보면 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했다. 서류의 가장 핵심인 자소서에 대해 말해 보자면, 나 같은 경우는 글재주가 없어 자소서 쓰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자소서만 쓰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라까. 그래서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도 갑자기 좋은 멘트가 떠오르면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두고 후에 자소서 쓸 때 활용하기도 했고, 또 자소서를 제출하기 전 친구나 가족한테 첨삭을 받았다.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본인이 친구 자소서를 첨삭해 준다고 하면 친구 자소서에 고칠 부분이 많이 보일 것이다. 신기한 부분이다. 내 자소서는 잘 못 고치겠지만 남의 자소서는 잘 고쳐 줄 수 있는 마법.

자소서도 많이 써 볼수록 늘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적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여러 자소서 모음을 참고하면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 회사나 병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과 인재상을 자소서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야 한다. 회사의 비전이 도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전 안정적인 걸 추구합니다.”라고 쓰면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면접! 면접 때 제일 중요한 건 1분 자기소개인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 할 텐데, 그때 면접관들의 기억에 확 남아야 한다. 짧은 시간에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걸로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인지 등등 강렬하게 나타내야 한다.

면접 전 그 회사의 예상 질문을 많이 준비해 답변을 만들어 달달 외우고 들어가 는 것이 좋다. 준비한 만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상 못했던 질문이라도 센스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목소리도 울먹거리고 눈물 흘리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도 떨지 않은 덕분에 병원에선 면접 때 당차서 너무 기억에 남았다고 칭찬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공부하면서 정말 자극받은 글이 있었다.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미래에서 제발 돌아가게 해 달라고 빌었던 순간이라면 어쩔 것 같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고 있다. 4년 정말 금방이다. 학

년이 올라갈수록 다들 취업의 현실을 깨닫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점 따기가 힘들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게 좋고, 취업할 때 보는 학점은 1~4학년 평균 학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너무 낮아선 안 된다. 이렇게 학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취업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곳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나 병원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게 학점이다. 학점은 그 사람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이다.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선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하고 2차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본다. 아마 취업할 때쯤 다들 자격증은 비슷하게 내놓을 것이다. 토익이나 한국사 등 비슷한 스펙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학점과 자소서에서 많이 갈리게 되어 있다. 자소서는 몇 번이고 수정할 수 있지만 학점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꼭 학점 관리도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끈대 같았던 얘기지만, 나중에 취업할 때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우리 나이에 늦은 직업은 키즈모델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아직 늦지 않았고,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 남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너무 늦은 시작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자신이 원하는 길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놀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의료공과대학 | 의료IT공학과

포트폴리오부터 면접까지, 성공하는 취업 노하우

삼성전자 이OO

나는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는 COVID-19로 취업난이 격해진 요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의 취업 성공 비결을 후배님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의 글은 후배님들의 취업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가 직접 취업을 위해 부딪치며 쌓아 온 노하우와, 취업에 성공하며 느꼈던 생각을 담았다.

모든 것을 씹어 삼킬 포트폴리오

예전과는 다르게 중고신입이 많아진 이제는 개발자도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보다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내겐 대학교 학부생 때부터 6년 동안 수정해 온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있다. 해당 포트폴리오를 보고 포지션 제안을 해 온 기업만 10군데가 넘었고, 그중 면접을 진행한 6군데의 기업은 모두 포트폴리오만 갖고도 합격할 수 있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 계기는 건양대학교의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절 과학 잡지를 참고하며 예쁘게 디자인했던 포트폴리오가 시초가 되어, 현재는 나만의 프로젝트 이력 요약서가 되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학부프로젝트를 정리하였고, 이

어 취업 준비를 하며 대학원 프로젝트를 추가로 정리할 수 있었다.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처럼 오랜 정성을 들일수록 진국이 된다. 특히 ‘프로젝트 이력’ 내용을 제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과 느낌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프로젝트 제목, 내용, 담당 역할, 결과 요약, 배운 점을 한 줄씩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찍었던 사진 하나만 첨부하면 끝이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나 자신을 준비된 인재로 만들어 준다. 급하게 면접 날짜가 잡히더라도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한 번 정독하면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취준생’이 되기 위한 준비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는 ‘1) 학점, 2) 제2외국어, 3) 직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꼽는다. 취업 시장이 변화하며 근래는 명문대의 중요성은 적어지고, 순전히 개개인의 실력만 보고 뽑는 회사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취준생이 되었을 때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하며 바로 관리하기 시작해야 한다.

학점은 개인의 성실도와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대학 생활을 성실히 했는지, 그리고 전공에 흥미와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학점을 통해 평가한다.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직접 참여했던 단체 면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원자가 학점이 낮은 반면 수상 경력이나 학내외 활동 이력이 저조해 압박 질문을 받은 케이스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님도 만일 평점 평균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전공과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이나 학내외 활동 이력이라도 더 늘릴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학점을 높이는 것이다.

제2외국어는 평가 척도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과거에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토익 성적을 기준으로 이력서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요즘은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과 오

픽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제2외국어는 시험 성적이 높거나,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더 우대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실제로 나와 같은 경우 영어(토익, 오픽)와 일본어(JLPT, JPT) 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진행한 여러 기업의 면접에서 내 어학 능력에 관한 긍정적인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제2외국어 성적은 공대 학생이라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어학 수준은 단기간에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이력서가 통과되는 수준으로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다.

직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은 면접을 준비하면 너무나도 절실해진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채용 공고만 읽어 봐도 느낄 수 있듯,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개발 역량의 기준이 매우 높다. 특히 요즘은 준비된 신입사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부생이더라도 프로젝트 이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프로젝트 이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4~5개의 직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활용하기 충분하다.

개발자 지망 공대생들은 다행히 프로젝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기업의 인턴을 하거나,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프로젝트 경험으로 내세울 수 있다. 또한 개발직 아르바이트나 토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과제를 많이 따오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석사를 수료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프로젝트 이력을 쌓을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특히 개발한 제품을 사용자에게 실제로 서비스하며 발생한 이슈를 해결해 보는 것도 높게 평가되는 자기소개서 소재가 될 수 있다.

학교가 뿌리는 지원이 곧 내 이력서 한 줄

후배님들은 건양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현재는 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는 의료IT공학과와 공학교육 혁신센터로부터 10개가 넘는 교내외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덕분에 매 방학을 할

용해서 부지런히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나열해 보자면, IoT스마트 융합전문가 인력양성 프로그램, 충청지역 창의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공학 페스티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EMS 교육, 미국 로즈헨만대학 MEMS 연수, 호주 스윈번대학 어학 연수, GlobalStudent 포럼, 건양대학교병원 실무실습, 미국 HIMSS17 전시회 참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중상위권 학점과 영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방학을 활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학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학부 시절 매 방학을 활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력서 10줄이 보장되었다. 이렇듯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참여하길 권장한다. 건양대학교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는 학교가 많지 않을뿐더러, 거저로 취업의 길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나만의 이력서·자소서·면접 Tip

이 글의 가장 초반에 강조했던 포트폴리오를 잘 써 두었으면 이력서는 문제가 없다. 포트폴리오에 모든 활동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좋은 팁을 주자면,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후배님은 이력서의 공통 기입 사항을 엑셀로 정리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좋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학부 및 대학원 때 들었던 모든 수강 내역을 기입하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어학 사항, 자격면허 사항, 수상 내역, 활동/연수 내용, 연구 실적과 같은 사항들은 기입하는 내용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채용 시즌이 되면 많은 기업에서 공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심사와 면접에 사용된다. 면접을 진행하는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는 사실 적시와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타인에게 첨삭을 받아야 하는데,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받

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내 경험상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가족들에게 침착을 받는 것이다. 가족이기에 더 세차게 가감 없이 봐주기 때문이다.

면접은 무조건 경험의 승부이다. 나는 면접을 준비할 때 학부 시절 교양필수였던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과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당 과목을 통해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전문가에게 컨설팅받을 수 있었고, 면접 강사분이 면접 프로세스를 함께 실습하며 평가해 주셨다. 면접실에서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한다.

또한, 면접 경험을 늘리기 위해 많은 기업의 면접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면접을 보러 갔다. 다양한 실무자로부터 내 프로젝트 이력을 해석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실무자들이 필드에서 실제 사용 중인 업무 용어 또한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역량 테스트 준비는 랫OO의 무료 실시간 강의를 많이 참고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주로 너튜브에 올라온 유명 채널을 구독하여 참고했다. 마지막으로 너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기업 채용 설명회를 놓치지 마라. 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후로 많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참석해서 채용 공고를 들길 바란다.

모두 웃으며 취업하길 바라며

나는 졸업과 동시에 내가 현재까지 공부한 전공 지식과 쌓아 온 스펙으로 지원 하는 곳 어디든 바로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희망과 용기에 가득 차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 또한 대학원 졸업 전까지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취업 준비 기간이 6개월 걸렸다. 취준생 생활은 3개월만 지나도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점차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조바심이 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면서 주눅 든 모습은 태도에 나타나 불을 면접도

떨어지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를 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면접관에게까지 내 당돌한 태도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중한 후배님들, 모두 웃으며 취업하자!

의료공과대학 | 의료IT공학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OO

특별하지 않은 시작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을 걱정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취업 스토리를 작성해 보기로 하였다. 내가 의료IT공학과이라는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 성적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찾았고, 의료 분야에 대해 배우는 학과인 줄 알고 지원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니 C언어, 자바, C#등 코딩에 대해 많이 배우고 컴퓨터공학에 가깝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처음 접해 보는 코딩 공부가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방향하며 1학년을 흘려보내게 되었다. 전과와 편입, 그리고 다른 진로들을 생각했지만 대학생이 되어 신난 마음에 친구들과 놀다 보니 1년이 금방 흘렀고, 학점은 좋지 않았다. 딱히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없었기에 전과와 편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고, 취업에 대한 생각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일단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고 싶은 것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후로 나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고 동아리, 봉사, 적정기술, 아카데미 등을 신청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였다.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관심 있고 꾸준히 활동한 것은 ‘적정기술 캡스톤디자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캄보디아에 가서 2주 동안 현지 조사를 하며 주제 선정 및

아이디어 설계를 하는 것이었다. 흥미가 생겨 한국에 돌아와서도 같은 팀과 설계를 이어 갔다. 이후 제9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고, KDB 적정기술 글로벌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상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과정을 거치는 등 2년 동안 학과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어느덧 4학년이 되어 있었다.

한 가지에 대해 열심히 활동하긴 했지만 4학년이 되니 취업이 눈앞에 다가왔고,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되었다. 적정기술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직업으로 결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학과 수업도 완전히 놓아 버릴 순 없었다. 취업에 대한 고민에 빠져 4학년을 다닐 때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학점을 얻기 위해 하는 공부 가 아닌, 더 알아 가고 싶은 수업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고민 끝에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프로젝트는 기술이전 준비까지 하고 멈추기로 결정하였다.

우연히 발견한 흥미와 진로 선택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들으며 흥미가 생겼을 때는 4학년이었으며, 취업 준비 중인 나에게는 진로를 정할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3년 동안은 컴퓨터 언어들과 코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배웠다면,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유지보수 등의 생명 주기 전반을 체계적이고 서술적이며 정량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웠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유지보수·폐기 처분에 대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어떤 게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아 갔다. 꼼꼼했던 나의 성향과 잘 맞다는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테스터에 흥미가 생겨 취업 준비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러 갔었을 때, 우연히 대학원생 선배의 상담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 선배도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으로 공부 중에 있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다. 찾아볼 수

록 욕심이 생겼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공학과 테스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하여 스스로에게 자신감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이 되고자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여러 가지 도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나는 2년 동안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목표를 세워 보았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교육과 자격증란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터에 관한 교육과 자격증들을 찾아보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준비해 나갔다. 내가 취득한 의료IT 공학과 관련 및 소프트웨어 테스터에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준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MOS access/Excel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으로 높은 수준의 오피스 활용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MOS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100%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는 CBT(Computer Based Test)로, 평가 방식이 정확함은 물론 시험 종료 즉시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는 Microsoft가 직접 인증하여 그 공신력과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인증 자격시험이다. MOS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보다 접근하기 쉬워 1~2주 정도 공부하여 취득하였다.

- 정보처리기사(필기/실기)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국가 자격증으로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기사 시험 응시 자

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하지만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비전공 졸업자도 응시 가능하다. 나는 기사 자격증을 2019년도에 취득하였지만 최근 2020년부터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 시험 과목이 개편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과목 중 데이터베이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기출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것 같다.

- CSTS(SW테스트전문가) FL

CSTS 시험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운영하는 SW테스트 전문 자격시험으로, 주로 QA직이나 솔루션 개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이다. 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해 찾아보던 중 알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변경된 후 취득하였다.

CSTS는 일반등급(FL)과 고급등급(AL)으로 나뉜다. 일반등급 검정 기준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기술 이론 지식을 갖추고, 테스트 계획·설계·실행·종료 등 테스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고급등급의 검정 기준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술 이론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며, 테스트 프로세스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등 테스트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SW 테스트 전문가(CSTS) 일반등급 자격 취득자 중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SW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보유 시 경력 1년으로 인정되며, SW 관련 분야 박사 학위 보유 시 경력 3년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 ISTQB(CTFL)

ISTQB 자격증(ISTQB Certified Tester)은 비영리 국제 소프트웨어(SW) 테스트 전문가 네트워크인 국제 SW 테스트자격위원회(ISTQB: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 Board)에서 주관하는 국제자격증 프로그램이다. ISTQB 국제 테스트 자격증 프로그램은 Foundation Level, Advanced Level, Expert Level의 3단계의 코어(Core)자격증이 있다. 이는 기초 단계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고급 단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에 애자일 테스트(Agile Tester)과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도메인 특화(Specialist module) 자격증들이 추가된다. 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 학습된 지식보다 테스트 실전 경험을 통한 응용 및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ISTQB 자격증이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 교재들이 영어를 번역해 놓은 것들이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을 응시할 때, 영어와 한글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한글로 선택했을 때는 번역이 애매하므로 영어로 된 시험을 추천한다. 하지만 영어가 어렵다면 한글로 해도 문제는 없다.

면접 후기와 그리고 도전

대학원 2년을 마치고 조금 쉬려고 했지만, 마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채용 공고가 떴다. TO가 많이 없어서 채용 공고가 잘 뜨지 않는다고 들었던 터라, 빨리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서류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처음 필기전형(AI역량검사)과 서류 전형이 통과되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면접을 처음 준비해 보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했고, 하나만 바라보며 2년을 준비했을 때라 긴장도 되었다. 2년 동안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논문들과 그동안 들었던 교육, 자격증들을 적어가며 면접을 준비했다.

면접은 집단면접으로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후, 면접관 다섯 분 모두 질문을 하고 지원자는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전공에 대한 지식을 많이 물어봤으며, 지원한 직무에 대해 꼼꼼하게 정보를 익히고 가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았다. 이력서에 적어 놓은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전공에 대한 상식을 많이 공부해 가는 것이 면접에서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상 가능한 질문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답변을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에서 나는 불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처음이라 그런지 상실감도 크게 느껴지고 ‘다른 곳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2년 동안 준비했는데 한 번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음 공고가 올라올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그 이후 3달 뒤에 다시 공고가 나고 2번 만에 합격을 했다.

만약 처음 면접에서 쉽게 포기했다더라면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취업 준비하는 그 순간은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재활복지교육대학 |
사회복지학과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라!

천안시 입00

내가 처음 사회복지공무원을 꿈꿨을 때는 그냥 막연히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정보를 알려 주는 사람 없이, 모든 과정을 나 혼자 찾아보고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더 고단하고 외로웠다.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공부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학교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1~2학년 때에는 취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3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실습을 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 긴 고민 끝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인터넷 카페였다. 수험 생활 1년 동안 카페를 통해 시험 자료, 공무원 시험 정보, 면접 자료 등을 얻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자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것은 4학년 여름방학이었다. 2학기에는 수강하는 과목 수가 적었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공부 방법에는 실강, 인강, 독학이 있는데, 나는 이 가운데 인강을 선택했다. 독학으로 하기엔 너무 아는 것이 없어 무리가 있었고, 실강과 인강 중 선택해야 했다. 실강은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인강은 스스로 수업 시간표를 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만일 많은 비용을 투자할 여건이 된다면 실강을 듣는 것도 추천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인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등이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일주일 치 계획을 짜 놓고 중간에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유연하게 공부하였다. 내가 가장 재밌어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과목은 한국사이다. 공무원 한국사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익히 들어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한국사 공부에 더욱 힘을 실어 공부하였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인강을 듣고 복습하는 과정을 1년 동안 반복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려웠던 내용이 암기되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재미를 느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국어의 경우에는 문법, 문학, 어휘, 비문학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한 과목

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의 경우 한자어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문법, 비문학, 문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다. 모든 걸 다 얻으려다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영어이다. 그래서인지 영어를 공부할 때면 의욕이 떨어지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과락만 면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임했다.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 공식 암기, 독해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영어가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꾸준히 영어를 공부해 놓길 바란다.

나는 선택과목으로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를 선택하였다.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과 동일하게 8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다행히 대학생 시절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만약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회복지학개론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경우에는 시험 5달 전에 급하게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고,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풀었다. 공통과목과 비교해서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았다.

나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땐 합격자 후기를 찾아보면서 그들의 공부법을 따라 하려고 했다. 합격자들은 기본 10시간은 공부하였다는 말에, 처음엔 의욕 넘치게 하루에 12~13시간씩 공부하였다. 그런데 문득 ‘내가 과연 이렇게 시험 날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후로 위와 같이 나만의 공부법을 찾았다. 공부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신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다면, 힘들고 고단한 수험 생활도 반드시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방심은 금물!

필기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필기시험 결과가 나왔다. 나는 영어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맘 편히 합격 조회를 하였다. 그런데 화면에는 ‘합격’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너무 당황해서 오류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도청 홈페이지에 내 수험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할 실감이 났다. 행복도 잠시, 2차 시험인 면접시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자의 1.2배수를 합격자로 선발하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발표 당일부터 면접 준비에 돌입하였다. 우선 면접 스테디를 구했다. 면접 스테디는 면접 정보 공유, 모의 면접 등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스테디원과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고, 기출 문제를 정리하여 모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난 모의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도 걱정이 많았다. 그래도 대학 시절 발표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걱정과 달리 잘 해내었다.

실제 면접에 있어서 모의 면접이 큰 도움이 되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준비했던 질문이 면접시험에 나와서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면접이 걱정되는 분들은 면접 스테디를 꼭 하길 추천한다. 그리고 대학 수업에서 발표를 너무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발표 경험이 면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잠들기 전 공무원이 된 내 모습을 상상했다. 공무원이 된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다. 이런 상상이 나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 나의 상상이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체가 되도록 노력한 결과,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복돋우며 수험 생활을 견뎠으면 좋겠다.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 시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 대학 시절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 놓은 덕분에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이해가 좋았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공부 습관이 있는 사람에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태 공부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험 생활 중에도 자신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보고 싶은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길 바란다. 1년의 레이스를 쉽 없이 달린다면 분명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나도 매주 일요일은 자유시간으로 지정하여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 놓으니 6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하루 공부 안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맘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사회복지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하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꼭 이겨 내고 멋진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현직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멀리서 응원하겠다. 파이팅!

재활복지교육대학 | 사회복지학과

때론 벼짱이처럼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OO

내가 택한 일

벌써 오래전 일이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선택한 전공을 내가 평생 사랑하며 전념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함께 인생 최고로 고민하던 날. 다시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무거운 고민과는 달리, 사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참으로 단순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함께 살자'는 생각과 함께 막연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입학 후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막연한 봉사로 생각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하면 되지, 굳이 4년제 대학에서 돈과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교수님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사회복지사가 되어 돌아보니, 그 말은 참으로 맞았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고, 졸업생 특강이며, 세미나며 기타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도 생각보다 끌리는 것이 없었다. 무언가 공허해 보였고, 그 직군에서 일하는 내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많은 후배들, 그리고 타 전공생들 또한 이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설정한 후 앞만 보고 달렸는데, 생각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정 앞에 무기력해지는 내

모습을 보는 안타까운 씩씩함이란.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생각보다 아직 따뜻하며 방황 속에서 손을 잡아 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처했던 상황처럼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걸었던 길 위에 새겨진 발자취를 따라갔던 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학교 1~2학년은 충분히 즐기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정말 그때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 하교 후 자취방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며 그날의 수업을 논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해 보고,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신나게 노는 것이 그렇다. 시간이 흘러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동기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걷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동기들이 서로의 서운함을 가지고 갈라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린 아직 젊고,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어중간하게 즐기고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놀아라. 사실 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힘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

3학년부터는 단순히 '놀자!'에서 '놀면서 배우자!'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나는 남자이기에, 여학생이 느끼는 3학년의 감정을 솔직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아직 어리고 모르는 것투성인데 벌써 3학년이네?'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본다.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를 하며 '제대하면 사람답게 살아 보자'는 생각과 함께 부푼 꿈을 가지고 복학을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놀기에 특화되어 있고, 오랜만에 공부하려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모르는 게 많다고 좌절하지 말고, 해도 안 된다며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지 말자.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해도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르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그 계절을 빛낸다. 똑같은 시기에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단, 내 자신을 믿고, 교수님을 믿고, 학교를 믿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보자.

4학년이다. 이제는 졸업 후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교수님들의 뜨거운 눈초리를 경험하게 되는 학년이다. ‘너는 4년 동안 무엇을 배웠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사실 4학년이 된다고 반드시 명확한 목표가 세워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린 아직 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자. 다만, 많은 경험들을 쌓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작은 노력들을 하기 바란다. 교수님의 애정 어린 말 한마디, 졸업생들의 현실적인 조언 등 허투루 듣지 말고 일단 부딪쳐 보길 추천한다.

무엇이든 후회 없이

이제 필자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1~2학년은 정말 신나게, 후회 없이 대학교 생활을 보냈다. 시간은 많고 돈은 없던 풋풋한 시절이다. 물론 현재는 시간도, 돈도 없지만. 3학년이 된 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교수님들의 말씀을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현실 속에서도 학교에서 정해 준 커리큘럼을 따라갔고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 따랐다. 잘 모를 땐 이끌어 주는 사람을 조용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끄는 사람의 팔로우십이 중요하다. 감사하게도 본 학과 교수님들의 팔로우십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다. 특히 조OO 교수님.

4학년이 되면,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괜히 해야겠다는 불안 심리가 발동된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한국사, 토익 등.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막연히 할 게 없을 땐 일단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게 좋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학년 때는 불안감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 ‘해도 될까?’가 아닌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부딪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다짐을 했던 것 같다. 하다 보면 된다. 정말로 된다. 그러니 해 봐라. 일단 자리에 앉아 봐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마친 20년 2월 곧 졸업을 하게 되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정면으로 사회에 부딪치는 날이 오고 있다.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나는 왜 사회복지를 전공하였는가?’라는 생각을 돌이켜 보았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함께 살기’라는 생각으로 전공을 선택했던 과거 모습을 보며 내가 전념할 수 있는 직군을 살펴보았다. 비슷한 시기에 ‘아동학대’가 뜨거운 감자로서 등장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굉장히 동감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관습처럼 내려오던 체벌에 대해 ‘NO!’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무엇을 알겠는가.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단 따듯한 위로의 한마디 건네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아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 해당 업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같은 생각들이 면접관의 마음을 얻었을까. 그렇게 나는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 둔감한 부모와, 학대를 당하고도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아이의 권리를 옹호하고, 수십 년간 쌓였던 편견과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 밤낮 쉬 없이 달리고 있다. 때론 학교, 경찰, 검찰, 법원 등 수많은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점에 답답함과 분노가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과 함께 현재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사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전히 미래는 막막하고 낯설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기억될 만한 추억이 되고, 미래의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휴게소가 된다는 점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 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미리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느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느 곳에서 쉬어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고는 딱 감고 첫발을 내딛자! 나 또한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걷고 있다. 어디에 구덩이가 있을지 모르고, 때론 그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고 좋았던 기억들을 회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또 걷는다.

마지막으로, 학과 교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 보자. 그분들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막연한 발걸음을 옮겼으며, 우리보다 먼저 구덩이에 빠져 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해 본 분들이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해 보라.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한다. 기억해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재활복지교육대학 |
심리상담치료학과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홍성여자중학교 남OO

‘전문상담교사’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심리상담치료학과에 진학했지만 얼마 없는 정보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몇 자 적어 본다.

1학년: 합격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여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두 번째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교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비로소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아쉽게도 전국의 모든 심리상담 관련 학과가 교직이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는 상위 10% +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교직이수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는 후배들은 1학년 때 성적이 상위 10%(약 5등) 내외로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학부 때 교직이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 교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험 응시 자격이 갖추어진다. 하지만 현재 교육대학원의 입결이 높아져 진학에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임용고시 응시 연도가 최소 2년에서 3년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부 교직이수를 노려야 한다.

나는 일찍이 전문상담교사를 꿈꿔 왔기에 1학년 때 누릴 수 있는 유희의 유희를 최대한 뿌리치면서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다행히도 학부 교직이수자로 선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적을 많이 보던 17학년 때와는 달리 최근엔 성적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다. 그러니 1학년 성적이 다소 높지 않더라도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는 후배는 적극 지원하여 면접 때 많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1학년이 가장 즐겁고 여유 있는 시간이므로 학업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많은 추억을 쌓기를 추천드린다.

2학년: 합격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탐 쌓기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교육봉사 60시간을 채우는 것을 추천드린다. 교육봉사과목은 학부 4학년 2학기 과정에 개설되지만, 4학년이 되기 전 60시간을 미리 채워 일찍 제출할 수 있다. 4학년이 되면 임용고시와 졸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지 때문에 최대한 일찍 봉사를 끝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교육봉사는 아무 곳에서 실시할 수 없으며 인정 기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교무팀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설 기관에서는 교육봉사로 인정해 줘으나 학교에서 미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심리상담치료학과는 학과 특성상 실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실습을 하기 전에는 꼭 꼼꼼히 살펴보고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한편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선 교직이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목들은 정원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교직 과목들은 유지해야 하는 평균 학점이 있기에 최소 평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잘 알아보고 교직이수 성적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란다. 또한 교직 과목에는 교직필수와 선택이 있는데 가끔 교직필수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해가 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 교필을 모두 이수하

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교직 과목에 변수가 생기면서 계절학기를 듣게 되어 임용고사 일주일 전까지 학부 시험을 보았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미리 체크해 놓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학년 때에는 독후감이나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하는 등 졸업 준비를 해야 한다. 3학년, 4학년 때에도 병행할 수는 있으나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중요한 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해결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는 응시 제한이 없는 직업상담사 2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임상심리사는 3학년 초 수련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청소년 상담사는 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3학년: 합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

3학년이 되면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란다. 한국사 자격증은 임용고사의 가장 기본으로서 이를 취득하지 못하면 임용고사에도 응시할 수 없다. 한국사 시험은 연초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상반기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다음으로 4학년 1학기 교생실습을 대비하여 자신이 실습 갈 학교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교에 갈 것인지, 대학 근처로 갈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학교 리스트를 정해 놓고 해당 교의 위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유무를 파악한 뒤 학교에 연락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12월에는 노량진에서 각 전공 및 교육학 강사가 ‘합격설명회’를 실시한다. 임용고사에서 다루는 전공은 학부 전공과는 차이가 크므로 초수에 독학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각 학원별 강사의 장단점과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합격 설명회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린다. 전공 강사는 해○스 김**, 루**, 희○

이**, 박○각 정**이 있다. 학원을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외에 교육학 강사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합격설명회와 블로그 후기를 참고하여 선택하시길 바란다.

4학년: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소진

4학년이 되면 학부 개강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학과 전공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를 들어야 한다. 강의는 전공과 교육학 각각 일주일에 8시간 내의 분량이 업로드 되는데, 이때 전공 및 교육학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 1시간에 다루는 양이 상당하다. 따라서 강의를 미루지 않고 듣고 복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늘 ‘강의 1시간이 밀리면 임용고시 1년이 밀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당일에 듣고 복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나 역시 교생 실습 기간에 2주 과정이 밀리게 되었고, 5일 안으로 모두 회독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4학년이 되면 필수로 해야 하는 실습 외에는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찍이 졸업 학점을 채워 놓아 최소 학점을 유지하시기 바란다. 학부 초수생은 1년을 올인하는 사람들과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학부 시험과 임용고사를 병행하다 보면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소진이 찾아온다. 이 시기엔 학습 스테디를 구해 파트너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무렵엔 신체적·심리적 소진으로 인해 강의와 복습을 미루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스테디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학습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여 스테디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혼자 시험을 준비하느라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자 기상 스테디, 청킹 스테디, 모의고사 스테디 등을 하였다. 스테디는 다음 한마음 교사되기 카페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2차 시험도 위와 같은 패턴으로 준비하면 된다. 2차 시험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스터디가 대체로 혼자 공부하고 글쓰기 중심이었다면, 2차 스터디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팀을 구성하고 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발표에 약한 타입이라 한 달 반 동안 8개의 스터디를 진행했고, 하루 평균 10시간을 준비했다. 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면접을 보기도 하고, 학과 강의실을 대관해 실제 면접장처럼 세팅하여 연습하기도 했다. 대면, 비대면(실시간·녹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였기에 여러 변수를 예측·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실제 면접장에서도 크게 떨지 않고 준비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다.

마지막 한마디: 내가 전문상담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전문상담교사를 꿈꾸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반드시 전문상담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연히 상담교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담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꼭 생각해 놓으시길 바란다. 3년의 준비 기간과 1년의 도전 과정은 굉장히 외롭고 지치고 힘겨운 시간이다.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때, 간절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운은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내가 상담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찾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언젠가 학교 현장에서 후배님들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다.

재활복지교육대학 |
아동보육학과

경험으로 배우며
이룬 꿈

KNF새빛어린이집 신OO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개강총회 때 인문학관 105호에 앉아 처음 든 생각은 ‘아, 여기 어린이집 교사하는 곳이구나!’였다. 학과에 대한 이해도 기본 지식도 없는 시작이었다. 내가 과에 온 이유는 하나 ‘아동’을 전공하고 싶어서였다. 그게 어린이집 교사이든 아동복지사이든 아동심리상담사이든 직업은 상관없었다.

몸집이 작고 체력이 약한 나는 어른이나 청소년을 상대하는 것을 유독 피곤해 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한 발언과 생각이 너무 좋아 힘이 났고,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러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고3 때 나는 담임 선생님 컴퓨터 앞에 앉아 전국 대학교 학과들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 창에 ‘아동’이라는 글자를 검색했고, 그렇게 면접 없이 수시로 들어온 학과가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였다.

학과를 들어온 처음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누구보다 즐겁게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매력을 느끼며 학과를 졸업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 모자라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평범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동기가 되길 바라며 나의 취업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별거 아닐 때가 있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로 정의했다. 난 그중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존경의 욕구가 강한 편인 것 같다. 그러한 내가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학년 때 했던 것이 부과대였다. 나는 부과대가 되어 전공 수업과 학과 행사를 도왔고 맡은 일을 멋지게 성공해 교수님과 학과 선후배, 동기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다 첫 방학을 2주 앞둔 날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까지 우리 과는 축제 기간 동안 동적놀이, 정적놀이,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4가지 코스를 준비한 후 어린이집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1학년은 행사 소품으로 필요한 물고기를 만드는 일을 맡았었다. 물고기 모양으로 두 개의 펠트를 잘라 버튼홀스티치로 이으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물고기 만들기가 엄청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고, 물고기를 예쁘게 완성해 자랑스럽게 제출하고 싶었다. 그러다 동기들에게 제출 날짜, 실의 색깔 등을 고집부렸고 결국 구연학사 지하에서 동기들과 심하게 다투고 말았다.

존경의 욕구가 높았던 나는 그날로 내 대학교 생활이 끝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밤새워 울다가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나를 심각하게 생각해 자퇴서도 작성해 보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방학이 일주일 남은 시점이기에 당연히 이겨 내 보기를 권유받았고 그렇게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얼굴도 들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모두들 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알고 남은 시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방학을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그 뒤 조심스럽게 동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사과를 하고 관계를 많이 회복한 후 방학을 보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기만 한 나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도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이 순간을 떠올려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일임을 알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져도 괜찮다. 충분히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토닥이며 잘 이겨 내기를 누구보다 응원한다.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교 3학년, 뜬금없는 동기의 추천으로 나는 학회장이 되었다. 나의 임원 경력은 1학년 1학기 부과대를 했던 것이 전부였던 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적잖이 놀랐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학회장 일은 정말 즐거웠다. 특히 1학기 축제 때 재활복지교육대학에 속한 각 과 학회장들과 힘을 합쳐 삼겹살 부스를 진행하는 과정이 정말 재밌고 보람찼었다.

하지만 아동보육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학술제는 어째서인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과정이 힘들었다. 1, 2, 3학년 모두 1년 가까이 열심히 준비하는 학술제였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공연 진도, 소품 만들기, 연습, 어린이집 초청하기 등의 진행에 반복적으로 차질이 생겼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답답해 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정답은 ‘소통’에 있었다. 삼겹살 부스는 진행을 위해 학회장들과 매주 만나 진행 상황과 보완해야 할 점을 끊임없이 소통했지만, 학술제는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결과만 보고 받는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삼겹살 부스는 홍보 영상, 포스터, 부스 꾸미기, 인력 보충하기 등 각 과가 잘하는 분야를 맡아 일을 진행했다면, 학술제는 모든 일을 혼자 잘하려고 했던 태도가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내 자만이었고 결코 바람직한 과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뒤 나는 임원뿐만 아니라 공연 리더, 각 학년 대표, 동아리 대표, 학년 전체 등 다양하게 만남을 가져 수시로 소통하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 부분을 잘 아는 동기와 선배에게 부탁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그제야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학술제가 아닌 함께하는 학술제가 되어 감을 느꼈고, 진행 또한 매끄러워져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학술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는 누구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혼자 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메이트 교사, 동료 교사, 영유아, 학부모, 원장님 등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함께 일과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혹 지금 답답하고 힘들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옆 사람에게 입을 떼어 보라. 그리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 너무 하고 싶다

아동보육학과 3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모두 자연스럽게 실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을지, 직장 어린이집이 좋을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어디인지, 최대한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 것 같다. 이왕이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가고 싶었던 나는 본가는 청주이지만 세종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활한 실습을 위해 운전면허에 도전하고 차도 갖게 되었다. 아마 내가 전국에서 실습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쓴 학생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기대감에 간 실습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너무 힘들었다. 6시 30분에 출발해 7시 40분에 도착하고 18시까지 실습 후에는 19시에 다시 본가 도착, 저녁을 먹은 후 22시까지 일지를 쓰고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교구를 만들며 수업을 준비했다. 이러한 일과를 6주 동안 쉬지 않고 보내니 점점 머리에 안개가 낀 것같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하루는 교실을 청소한 후 체력이 약한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들게 되었다. 불안감을 잠재울 겸 창문 밖을 바라보자,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찌나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2층 교실까지 크게 들렸다. 그리고 다시 교실을 둘러보는데 선생님과 함께 정한 약속이 적혀 있는 약속판, 흥미에 따라 만들어 본 미술 작품, 힘을 합쳐 만들었던 유니트 블록 구성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씩 만들어 간 공간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고, 나도 그러한 공간이 너무 갖고 싶어졌다. 실습 선생님, 봉사 온 학생이 아닌 ‘우리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고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보육교사가 된 지금, 아이들이 낮잠에서 일어나 비몽사몽한 채로 방긋 웃으며 “선생님!” 하고 안길 때 가장 행복하다. 학과 생활 중 다양한 일을 통해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할 때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한 번 떠올려 보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혹은 투정 어린 울음소리, 함께 부르는 노래, 즐거운 놀이들... 떠올렸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러한 반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싶어진다면 누구보다 보육교사에 어울리는 사람일 것이다.

나에게 어울리는 곳을 쟁취하자

실습을 마치면 이제 어디 어린이집으로 취업해야 할지 모두 고민하게 될 것이다. 좋은 어린이집으로 취업하고 싶지만 어디가 좋은 곳인지 잘 몰라 준비하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다. 좋은 어린이집은 무엇일까? 복지가 좋은 곳? 경제적 보장이 되는 곳? 학부모님이 친절한 곳? 집과 가까운 곳? 정확한 기준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

학과 생활 1~4학년 동안 참 행운이었던 것 중 하나는 교수님의 과제를 통해 다양한 어린이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애 어린이집도 있었다. 당시에는 현장에 직접 가 선생님과 영유아를 직접 만나는 과제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나에게 어떤 어린이집이 적합한지 짧게라도 느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

해 퇴근이 늦을 수 있어도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재단 어린이집에 취업하고 싶었다.

그런 나에게 큰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면접이었다. 대학도 면접이 아닌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경험이 전무한 나는 많은 걱정이 되었다. 그때 학과에서 준비해 주신 사전 면접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진짜 면접이라는 가정하에 열심히 준비해 보았다.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재단의 홍보 영상, 교육 이념 등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준비하고 연습하니 실패해도 그것이 내 최선임을 알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렇게 본 사전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고쳐야 할 습관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실제 면접을 잘 보게 되어 현재 원하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활복지교육대학 |
유아교육과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의 훌륭한
동반자

건국대학교부속어린이집 100

확고한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

졸업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나는 아직 서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나의 꿈을 이뤄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과연 나도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던 나도 이렇게 꿈을 이뤄 갈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어렸을 적부터 나에게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라는 확고한 꿈이 있었다. 내가 받았던 아낌없는 사랑을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꿈이었다. 확고한 꿈이 있다는 것은 꿈을 향한 탄탄한 디딤돌이 되어 준다. 어릴 적부터 키워 온 나의 꿈 덕분에, 시작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확고하게 이어 나갈 수 있었다. 꿈을 위한 첫 시작은 건양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진학하게 된 것이다. ‘가르쳤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건양대학교의 교육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4년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 보려 하였다.

이렇게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던 나였지만,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내내 노력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된 것은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기회라고 생각만 했을 뿐, 그 이후의 취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었다.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새로운 환경, 사람들과 만나고 즐겁게 놀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새내기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나에게 남은 것은 즐거움뿐이었다.

사람들과의 즐거운 추억도 좋지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성적, 스펙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을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아 후회되었고,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었지만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미래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얼마나 전념했는지는 성적에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소홀했던 학과 전공 수업에 매진하며 기본적인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전공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파악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뿐만 아니라, 수시고사, 과제, 발표 등 전공의 중요 요소를 이해해 보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이는 취업을 위한 면접과 실제 현장에서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요즘에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부모들과 소통할 때에 이러한 전공 지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제야 생각해 보면 취업에도 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꼭 상위권 성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성적을 유지한다면 또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학년과 4학년 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라는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매일 이론적인 전공과목을 공부만 하다가 현장에 나가 보니 당황스러움투성이었다. 실습하는 한 달 동안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 부담감, 어려움 등으로 울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현재 노력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왕 시작한 것,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보자!'는 생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실습을 나만의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 나가 보기 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경험해 보려 하였다.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의수업과는 다른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실습 담당 선생님들은 영유아들과 함께할 수업 계획을 짜면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동안 내가 아이들과 해 보고 싶었던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습의 경험들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운 내용들은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기회를 자신만의 기회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개미와 베짚이의 동화 속에서 개미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일을 열심히 하고, 베짚이는 현재만 생각했다. 개미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해 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해 보고 노력하며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그 노력들은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교사

모든 전공에는 다양한 자격증들이 존재한다. 유아교육에서도 전공 필수적인 자격증과 교사 생활을 하며 유용하게 쓰일 자격증들이 많다. 이러한 자격증들도 자신의 큰 스펙이 될 수 있다. 건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려 노력하셨다. 그중 자격증이 나의 스펙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 이력서를 작성할 때면 모든 내용의 한 줄 한 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취업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만으로 꿈에 대한 나의 진정성과 노력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작성하고자 했다. 교수님들이 마련해 주신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들이 나의 이력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었다. 유아교육 전공자라면 흔히 취득할 종이접기, 캘리그래피, 풍선아트 등 기본적인 만들기 과정뿐만 아니라, 놀이교육, 레크리에이션교육, 스피치 및 리더십 지도사 등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다양한 자격증들의 취득 기회

를 놓치지 않았고 나만의 스펙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다양한 자격증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양대학교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또한 강한 어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 건양대학교에는 KPP(Konyang Power Program)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정규교과 외에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건양대학교만의 프로그램이다.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각 학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열심히 살려 보았고, 이는 실제 면접 현장에서도 면접관들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이 되었다.

혹시라도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자신만의 스펙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스펙이자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나의 강점은 곧 나의 스펙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하나씩은 꼭 있다. 자신만의 장점이자 강점을 또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이러한 나의 강한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강점으로 내세워 나만의 스펙으로 만들어 보았다.

유아교육과의 2018학년도 부학회장과, 2019학년도 학회장의 직책을 연임하며 학과의 전체적인 진행 관리, 재정 관리를 맡게 되었다. 또한 과의 대표적으로 큰 행사이자 1년 장기 프로젝트인 ‘지역 아동 초청 문화공연’이라는 학술제를 이끌어 나갔다. 학술제의 전체적인 구성, 진행, 통솔을 맡으며 학과 원들과 힘을 모아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하나의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학과 원들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며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조직은 나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조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장점으로 발전시키며 협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강한 뜻심이자 책임감 있는 성격과 리더십이라는 강점을 학회장의 직책을 맡으며 또 다른 나의 스펙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손으로 만지고 오리면서 만드는 것을 선호하며 손재주가 있다는 강점을 나의 전공인 유아교육의 교재교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교육기관에서 활용되는 교재교구는 영유아들에게 교과서이자 놀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물이 될 수 있기에 교재교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아교육 전공에서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유아교육 전공과목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여 교재교구를 직접 계획하고 제작해 보고 모의수업 자료로 활용해 보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의 강점을 찾아 스펙으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스펙을 준비해 두었다면 3학년 말과 4학년 초반부터는 취업의 길을 정하는 것이 좋다. 확고한 목표만큼 탄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뒤늦게 공고 모집을 보고 서두르는 것보다, 자신이 취업하여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기관의 목표,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등 모든 것들을 파악해 보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면접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나는 간단한 자기소개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훌륭한 동반자’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모든 사람에게 첫인상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소개해 본다면 면접관들에게도 강한 인상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면접

질문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기관마다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다르지만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건양대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보았을 문구이다. 내가 건양대학교 입시를 위해 학교에 첫 방문을 했던 날 정문 입구에서 보았던 문구인데, 졸업한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입시 면접과 취업 면접이라는 두 가지 큰 면접을 경험해 보았다. 누구에게나 면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고 긴장될 것이다. 하지만 이 문구를 보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만큼 꿈의 길을 막는 것은 없다. 자신의 확고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번의 후회와 실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회로 바꾸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누구에게나 나아가는 방식이 같을 순 없지만, 성공이라는 노력의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그 꿈을 이루려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재활복지교육대학 |
유아교육과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의 훌륭한
동반자

건양대학교부속유치원 최OO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너무 빠듯한 계획을 세워 생활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고, 우리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다. 평소 나는 하루를 글 또는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여 일기를 꼬박꼬박 작성하는 편이다.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온전히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느낀 감정들에 집중하려 한다. 그러다 문득 나의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되돌릴 수 없는 이 순간을 언젠간 후회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졌다.

하지만 나의 성격상 계획적인 삶은 내 자신에게 부담과 압박을 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의 계획이 아닌 1년 최종 목표와,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한 달 무엇을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게 되었다. 나의 1년 목표는 1학년 때는 ‘다양한 사람과 친해지기’였고, 2학년 때는 ‘나를 조금 더 드러내기’, 3학년 때는 ‘나에게 오는 기회를 잡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 4학년 때는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였다. 대학 생활 4년간 내가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4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새로운 만남 즐기기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새로운 만남을 끊임없이 갖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현장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학부모님들을 응대하는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친구들의 성향이 제각각 다르듯, 각각의 학부모님들이 지닌 색깔도 모두 다르다. 같은 이야기를 전할 때에도 각자가 지닌 색에 따라 대화의 시작과 끝맺음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깊은 고민에 빠진 나는 대화법에 대해 공부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즐겁게 된 이론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향이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보기로 결심했다. 확실히 이론서를 읽을 때보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니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대화에 어떻게 공감하고 반응해 주어야 하는지 쉽게 터득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처럼,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다양한 색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 직접 대화해 보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다. 이 시간들은 결코 나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 교사로서 보다 다양한 색을 지닌 사람들과 쉽게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에게 오는 기회 놓치지 않기, 스스로 기회 만들어 내기

돌아보면 나의 대학 생활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거나, 잡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1학년 때에는 학교와 학과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 나에게 오는 기회조차도 눈여

겨울 시간이 없었지만, 2학년 때부터는 꽤나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4학년 학기 말에야 깨닫고 많이 후회했다.

1학년 때에는 학과의 이론 수업에 집중하시길 바란다. 과 특성상, 1학년 때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므로 학과 수업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모의수업에 자진하여 참여하고, 다양한 자격증 수업에 참여하시길 바란다. 모의수업 진행 후 갖게 되는 피드백 시간이 학부 생활 내내 나에게서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여 나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졸업을 위해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되도록 의미 있고 활용도 높은 자격증 수업을 들어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추천드리는 자격증 수업은 종이접기, 풍선아트, 북아트, 폼아트, 코딩이다.

3학년 때에는 1, 2학년에 비해 부쩍 바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다양한 대외 활동과 교내 대회에 참가하시길 바란다. 교내에서 수업 경진 대회, 교재교구 경진 대회가 열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가하시길 바라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시길 바란다. 같은 학교의 다른 과 학생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학교에서 같은 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꾸준히 소통하다 보면 분명 학교 내에서는 결코 쉽게 잡을 수 없는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학년 때에는 본격적인 자기 개발에 힘쓰시길 바란다. 각자 원하는 취업 분야가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오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

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 나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건양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 인턴십 보조교사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도우며 다양한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놓치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유아교육 현장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계획과 이행이 필요한 곳이다.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 나갈 줄 아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평가,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태도가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평가라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며, 평가받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보완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평가에 익숙해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게 변화 및 발전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를 믿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놓일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온전히

자신이며,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과가 성공으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여 결과가 실패로 되 돌아온다 해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 한층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원동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으며,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미래의 자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것이다. 평균 수명 100세인 시대에 우리는 아직 삶의 절반도 살아오지 않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됐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가 실패로 돌아오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한쪽 방향이라도 먼저 가 보고 나서 되돌아오는 방향이 더 의미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될 것이며, 누구보다 반짝 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어쩌면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배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재활복지교육대학 | 중등특수교육과

실력도 운이라면,
그 운은 내가
만드는 것!

서울동천학교 김OO

제목에서와 같이 나는 실력도 운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론을 믿는 것은 아니기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 그 운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MBTI가 유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내 행동이 이제야 이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나를 아는 일은 꽤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향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떨 때 가장 공부가 잘됐을까? 새벽에 했을 때? 카페에서 했을 때? 그러니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도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하기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나는 어떻게 공부했을 때가 가장 잘됐었지?’

나는 본래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에 진학했을 만큼 수학을 좋아했다. 글보다 숫자와 연산을 더 좋아했으니, 긴 글은 읽는 것도 지루하고 이해도 바로 되지 않았다.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 중등특수교육과에 입학했지만 전공 내용을 이해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포기할까 싶었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특수교육은 꽤 매력적이었다.

자, 나처럼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바로 내용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나는 수기로 마인드맵을 그렸다.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정리해서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는 중얼거리면서 이중부호화를 실현했다. 또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마인드맵이 맘에 안 들면 몇 번이고 다시 작성하고 반복까지 하여 완벽히 머릿속에 입력하였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다.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집중력은 어떻고, 수기가 편한지 문서 작업이 편한지도 다 고려하여 장기간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찾길 바란다. 나만의 공부법을 찾은 것부터 첫 번째 행운을 만난 것이다.

공부와 일 사이

졸업을 하고 나면 누구나 고민을 할 것이다. 일을 해야 하나, 그냥 공부를 해야 하나. 물론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한다. 졸업 후에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워야 할까?

나는 학부생 때 임용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굳이 하던 공부의 흐름을 끊고 일을 하는 것은 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생 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기간제 교사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나는 후자에 해당되는 학생이었다. 4학년 때까지도 임용고시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막연히 ‘보긴 봐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뿐이었다. 졸업시험도 보고 첫 임용고시도 치렀지만 감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대책 없이 졸업한 내가 졸업생이라고 임용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어려웠다. 임용고시를 쉽게 보고 독학하고자 도서관을 다녔지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기간제 제의를 받았고, 고민하다가 경험이라도 쌓자 싶어 용인으로 올라왔다.

후배님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목표를 꼭 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간제 교사를 하는 동안에 ‘동기와 기초의 시간’으로 정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 수업을 준비하면서 꼭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열의를 품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하는 동안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임용고시의 감을 잃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기초 강의만 틈틈이 들었다. 추가로 말하자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일 년을 올인한 후 바로 합격했는데, 올인하는 동안 일하면서 기초를 다졌던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만큼 어려운 게 없다

누군가는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고 하던데, 나는 공부가 가장 어려웠다.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기긴 하는데 어려운 건 여전하다. 내용의 난이도를 떠나 공부는 너무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용고시는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앞서 말했듯 계약을 끝내고 그해 일 년을 올인해서 공부했다. 후반부로 갈수록 루틴에 맞춰 생활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점점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공부에 재미있어진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생기는 갖가지 부담들이 나를 지치게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던데 반강제로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니 너무 우울했다. SNS를 보면 다들 잘 지내는 것 같고, 일하는 친구들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니 여간 부러운 게 아니었다. 또 맨날 앉아만 있으니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지고 살은 살대로 붙어서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있었다.

임고 초반에는 마냥 참기만 했었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엇나가고 핑계 대며 일주일씩 쉬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한 것이 루틴이었다. 하루의 마지막(밤 11시 이후)에는 꼭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공부치팅데이를 즐겼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났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지칠 때면 노래방에 가서 한 시간씩 소리도 지르고 왔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후배님들이 이 글을 본다면 꼭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나만의 해소법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행운이 될 것이다. 묵혀 두지 말고 공부하는 중간중간 잘 쉬어 주길 바란다. 나는 우리 후배님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임고 생활을 하길 바라니까!

스터디 워드 미

공부를 하다 보면 스터디라는 문화를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스터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점점 스터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말한 공부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에 영역이 한두 개도 아니고, 11개 정도 되는 모든 영역을 수기로 일일이 정리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여담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초에 겨우 끝냈다. 이런 와중에 스터디까지 했다면 죽도 밥도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도저히 정리만 하다가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9월 중순에 스터디를 만들었다.

초수생일수록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터디를 통해 시험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 루틴이나 공부 방법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강사의 자료도 얻을 수 있고 새로 추가된 정보도 알 수 있다. 다양한 목적의 스터디들이 일명 특꿈이라고 불리는 ‘특수교사를 꿈꾸며’ 다음 카페에 많이 있다. 꼭 들어가서 하나라도 참여해 보길 바란다. 하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또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으니 꼭 공부 목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추가로 내가 했던 스터디를 알려 주자면 전공 기출 심화분석 스터디(밴드), 교육학 기출풀이 스터디(밴드), 법 인출 스터디(전화), 전공 인출 스터디(대면), 암기과목(법&교육과정, DSM-5, 점자, 지화, udl 접근성) 인출 스터디(밴드)를 했었다.

길은 우리가 닦아 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특별시에 지원을 했다. 당시에는 1순위 국공립, 2순위 사립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지원했다. 사립은 현재 근무 중인 서울동천학교이고, 1순위는 1점 차이로 탈락하게 되었다. 다행히 사립학교에는 1차 합격선이었는데 2차 스테디를 만들어 준비한 후 당당히 합격하였다. 3명 뽑는 자리에 우리 스테디원이 다 붙었다. 정말 행운의 연속이었다.

길은 다 닦아 냈다. 이제 후배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행운이다. 임용고시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탄탄히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해 나가길 바란다. 몸도 지칠 것이고 회의감도 많이 들겠지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 피는 봄에 선생님이 될 나를 상상해 보라!

“길은 이미 우리가 닦아 냈어요, 후배님들! 이제 막 꽃이 자라고 있으니, 후배님들이 올 때엔 무성한 꽃길이 되겠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

재활복지교육대학 | 중등특수교육과

시작이 반이다

대전가원학교 문0000

특수교사, 꿈을 위한 첫걸음

중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특수교사였다. 특수교사라는 꿈 하나를 바라보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해 왔지만 그저 막연해 보였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나의 꿈은 현실감도 없고, 경험도 없는 먼 미래였다.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만 있을 뿐 계획이 없는 나에겐 기회가 열려 있는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입학이 특수교사로서의 진정한 첫걸음이었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AL, PBL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을 경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나에게 특수교사가 되리라는 진정한 동기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임용고시 준비 방법,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경험으로 나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결국 임용고시에 붙게 되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내내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부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본 골격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용고시의 기본은 대학 때 몸으로 습득했던 경험적 지식, 오랜 기간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배웠던 전공 지식인 것 같다. 후배들도 대학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 지식을 임용고시에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 글

로 전해 보고자 한다.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과정을 수기로 적어 본다.

대학 1, 2학년: 특수교육에 익숙해지기

대학에 들어와서 2년 동안은 특수교육이라는 학문과 현장에 익숙해지느라 바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와서 적응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대학 초반 1학년과 2학년 때 대학에 적응을 하며 임용고시 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나의 공부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교과서가 있었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에서는 두꺼운 전공서적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 처음 접하는 1학년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요약해서 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으니 말이다. 대학에 와서 많은 전공서적에 대해 나에게 딱 맞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나는 반복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지난번 배웠던 내용을 한 번 읽고, 수업이 끝나고 전공서적을 다시 한 번 읽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노트로 정리했다.

그때는 이 공부 방법이 학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방법이 꼭 적용되었다. 임용고시도 학과 시험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양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시험이다. 임용고시를 볼 때도 전날 했던 공부, 내일 했던 공부를 반복적으로 인출하고 읽어 보며 공부했다. 나는 나의 공부 방법을 찾음으로써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였다. 후배들도 대학을 다니며 나만의 공부 방법, 가장 효율적인 인출 방법 등을 생각해 보고 찾는다면 임용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장을 알아보는 것이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꿈을 가지려면 현장을 아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대

학에 입학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 특수학교에 가거나,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장애학생을 직접 만나는 것이 나에게서 큰 경험으로 다가왔다. 특수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선생님이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볼 수 있었고, 장애 영역별로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전공과 연계하여 배울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의를 들으며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눈으로 관찰하니 임용고시를 볼 때까지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더불어 임용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현장과 관련하여 심화되는 전공 문제도 이해하기 수월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지금도 현장 실습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적용해 보기도 한다. 후배들도 현장에 갈 기회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향후 교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분명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험을 알아보기이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임용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므로 내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찾아보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임용고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임용고시 2차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용고시 공부를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용고시 문항의 출제 비율과 과목을 찾아봐도 좋고, 과거 시험 문제를 직접 찾아봐서 훑어봐도 좋다. 또는 합격자들의 특강이나 합격수기를 찾아봐도 좋을 것이다.

넷째, 전공을 알아보기이다. 대학에 갓 입학하여 생소한 장애 영역들과 특성들이 나를 맞이하였다. 어려웠지만 학과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었다. 특히, 1학년 때 배웠던 ‘특수교육학’은 장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이후 배울 전공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도록 기본 골조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 여러 가지 전공을 배우고 공부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갔다. 임용고시의 바탕도 특수교육 학문에 있다. 대학에

서 특수교육 학문에 대해 잘 배우고 탄탄한 골조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금방 이해하고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하는 습관 갖기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필요한 것이 많은데 자료를 찾아 보면 어디에 있는지,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말로만 들었고 아는 것도 없었기에 포트폴리오 작성 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몰랐었고 내가 했던 결과물들을 항상 수집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다행히 지금까지 만들었던 교구, 모의 수업, 활동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기에 급한 불은 껐지만, 미리 그날그날 했던 활동들을 기록하고 결과물로 남겼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 내에 진로취업상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내 것은 내가 챙기고 준비해야 한다. 4년의 세월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생각보다 금방 가기 때문에 취업을 잘하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대학 3학년: 임용고시 준비하기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임용에 대한 두려움이 눈앞에 그려졌다. 내년이면 임용을 봐야 한다는 생각과 임용에 대한 막막함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는 임용고시를 보기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교 3학년 때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첫째, 임용고시 공부 계획을 수립해 보았다. 흔히 임용고시는 마라톤이라고 한다. 단기간에 끝나는 시험이 아닌 긴 시간 준비해야 한다. 마라톤이라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나만의 맞춤형 계획이 없다면 방향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 3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전공, 교육학, 법, 교육 과정 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았다. 언제쯤 암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스터디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임용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성이 생기고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확신이 생길 것이다.

둘째,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다. 3학년 때는 학과 생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4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갑자기 늘어난 공부 시간과 방대한 공부 양은 임용고시 공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3학년 때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한다면 갑자기 늘어난 공부 시간도, 방대한 공부 양도 견뎌 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한 만큼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튼튼히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체력을 키우는 것이다. 공부할 때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체감하지 못하고 체력을 쌓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부족한 체력은 금방 집중력을 흐리고 졸음이 쏟아지게 했다. 공부하는 내내 체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막상 시험이 다가오는데 운동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길 바라면서 체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력부터 키우라는 말을 본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 1시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데 더 뛰어난 집중력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4학년: 최선을 다하기

대학교 4학년 때는 임용고시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가장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생, 졸업 시험 등 할 것도 많은 한 해인 것 같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도 함께 있었다. 4학년 때 바로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이 시기에 가져

가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첫째,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하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출 문제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다음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면 합격에 있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갈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출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터디를 하는 것이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을 수 있지만, 스터디는 꼭 한번 해 보기를 추천한다. 스터디원을 보며 장점을 배울 수 있고, 나의 나태함을 채찍질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스터디를 하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는 법, 교육 과정 점자를 점검하는 스터디, 기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스터디였다. 기출 문제를 함께 분석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부하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 갔다.

셋째, 2차 준비는 필수이다. 1차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임용고시는 2차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언젠간 2차 시험을 봐야 한다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초수 때 1차 시험에서 과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차 시험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다음 해에 1차 시험을 합격했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 2차 스터디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 경험 덕분에 합격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일단 시작하자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막하고 힘든 길로 한 발짝 나서기엔 많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는 일사천리일 수 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임용 합격이 눈앞에 있을 것이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여러분의 모니터 앞에 떠 있을 것이다.

재활복지교육대학 | 초등특수교육과

견디면 이겨요!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강OO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시간에 대해 몇 글자 적어 보려 한다. 사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특수교사를 꿈꾸는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써 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

나의 대학 생활은 평범했고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았다.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고3때부터 많은 것들을 하고 열정이 넘치는 학과 생활을 한다고 들어왔다.

1~2학년 때에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을 즐기며 친구들과 매일 함께 붙어 다녔다. 중간·기말고사는 벼락치기를 할 때가 많았고, 과제도 하루 전날에 할 때가 더 많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어떤 수업이든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여 열심히 들었다. 그때 들었던 수업 내용들이 이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1~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는 다른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만큼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는 '새싹이 캠프, 봉사 활동, 교생 실습' 등의 큰 활동들이 있다. 이런 학과 활동들은 그 당시에는 힘들 때가 더 많지만, 지금의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외부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특수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어떤 경험들보다 소중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순간들을 잘 이겨 낸다면 원하던 길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임용고시가 뭐가요?

임용고시는 3학년부터 준비했다. 물론 마음의 준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하며 불편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공부를 하지는 못했다. 생각처럼 공부는 쉽지 않았다. 그저 전공 내용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인강을 보며 전공 책을 정독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 방황하던 이 기간이 없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임용고시를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다. 마음먹기는 언제든지 혼자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 등등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다. 수업에서도 임용고시 준비법, 내용 등은 알려 주지 않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교수님,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했다. 어떤 책들이 유명한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은지,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익숙해지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스터디도 해 봤다. 인터넷에 다른 합격생들의 후기를 보면 많이들 스터디를 해서 거의 필수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나의 방법 또한 나에게 정답일 뿐, 누군가에게는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부터 준비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3학년 때부터 필사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한다.

1차 이야기: 이거 언제 다 해?

임용고시 1차는 필기시험이다. 논술, 교육 과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술은 전공에 나오는 개념을 토대로 글짓기를 하는 것이고 전공과목은 각 장애 영역, 초등학교 교육 과정(일반·기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점자, 수어 등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모두 주관식이며 단답형으로도 있고 서술형으로도 있다. 특수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의 양은 너무나도 많다. 특수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 내용도 전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중등과는 달리 교육학이 나오지는 않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많은 양의 내용을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시험인 것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 영역(이하 전공)은 인강으로 2번 돌렸다. 1번은 3학년 때 내용 파악 정도, 2번째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 가면서 들었다. 이 과정은 4학년 여름방학까지 이루어졌다. 사실 '이 속도로 했다가는 다 못 보고 시험 보겠구나.'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불안함은 시험 끝나는 날까지 떨쳐낼 수 없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전공을 정리부터 반복하기까지 거의 2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외의 내용들은 1년 동안 준비했다. 논술은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별도로 공부할 내용은 없었다.

처음에는 문제에 대한 요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답을 보며 따라 적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전공 내용을 외우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쓰는 연습을 했다. 공책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기출을 풀어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매일 적었다. 맞든 틀리든 문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했고, 기출에 나왔던 전공 개념은 시험 전날까지 반복하며 모두 외웠다. 실제로 모든 내용을 외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매일 반복해서 내용을 익혔다.

임용고시는 정말 1점 하나가 중요한 시험이기에 논술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논술 점수는 일단 확보하는 것이 다음 교육 과정 시험에서의 부담을 더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 중 총론은 수업 시간에 과제로 만들었던 정리 자료를 활용하여 매일 정독하고 빈칸 채우기로 암기했고, 일반·기본 교육 과정은 1년간 인강으로 공부를 했다. 과목별로 내용이 너무 많았지만 초등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이어서 오히려 전공 공부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인강을 들었다. 그리고 그중에 자주 나오는 문제나 꼭 하나는 나오는 것(수업모형 등)은 최대한 외웠다. 특수교육법, 수어, 점자 등도 마찬가지로 외웠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고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공부하면 할수록 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1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기에 나올 확률이 높은 내용은 무조건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나의 공부법 중 하나였다.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야 할 양이 많지만, 매일 읽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내용들이니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교적 내용이 적은 것들은 그만큼 잊기도 쉬우니 최대한 하루에 한 번 씩이라도 보려고 노력했다.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 서로 간단하게 문제를 나누고 점자로 편지를 쓰는 등 쉽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기출이 바탕이니, 무조건 필수로 봐야 한다!

나의 하루 일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하루 일과는 1년간 동일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고 7~8시에 학교에 나와 실제 시험 시간에 따라 논술 문제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아침 공부 끝나면 친구들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 학식을 먹고 30분 안에 자리로 돌아왔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거의 30분은 걸렸던 것 같다. 저녁 전까지 공부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1시간 동안 저녁을 먹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11~12시까지 공부하다가 잠을 자러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하루를 1년간 보냈지만 목표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했기에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다. ‘하루에 15시간 공부하기!’를 목표로 했지만 잠만 자고 늘 책상에 앉아 있어도 온전히 15시간을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10시간은 채우기’를 나와의 약속으로 정했다.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날(주말, 날씨 좋은 날 등)이면 종종 미련 없이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바깥공기를 쐬러 가기도 했다.

마음 돌보기: 관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만큼 중요한 건 스스로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든 마음 편히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만큼 나와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불안함에 너무 많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한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기. 하지만 스트레스 풀다가 꼭 내 자리로 돌아오기. 일시 정지는 멈춘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정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2차 준비: 밀져야 본전이다!

2차 시험은 합격 발표가 나오고 시작했다. 그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사실 1차보다 2차가 더 큰 스트레스였다. 정답도 없고 뭐가 맞는 건지 몰라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보지만 결국 시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준비하면 그 노력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나의 이야기

같이 자취하는 친구와 함께 임용고시를 준비했다. 우리는 매일 밤 공부하고 돌

아와 자리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할 수 있을까? 우리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되면 말도 안 된다.” 그랬던 우리가 함께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돌아오지 않을 자유로운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결정도 그 결정에 따른 결과도 자신에게 달렸으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그 선택에 후회 없는 결과가 따르기를 응원한다.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어 지칠 수도 있다. ‘이 길이 아닌가? 난 안 되는 건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고 수도 없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당연히 지나갈 것이고, 나와와 약속을 지키며 견뎌 낸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다를 뿐. “얼마나 일을 많이 오래하려고 이렇게 일찍 붙었어?” 첫 출근과 동시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그 시기가 언제든 결코 늦지 않았으니 조금함보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기를! 그 끝에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해 바란다.

글로벌경영대학 |
글로벌경영학부

파부침주
(破釜沈舟)

미래에셋금융서비스 경OO

능력제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글을 보는 취업생 및 학생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한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이런 책임감 없는 위로는 현실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비슷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지극히 능력제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라며, 질문 하나 하겠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남들과 얼마나 다른 노력을 하고 있나? 그냥 어영부영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 늘리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 효율성 없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먼저 내가 취업까지 해 왔던 과정과 생각을 들려드리고자 한다. 나는 서울 금융권을 준비했다. 19살까지 11년 동안 바둑을 한 나는 목표에 대한 좌절을 맛보았

고, 이제 다른 새로운 꿈과 목표를 정해야 했다. 한 번에 목표와 꿈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보았고, 고민 끝에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20살부터 주식을 시작하였고, 금융권을 들어가야겠다고 거시적으로만 생각했다.

나도 취업 준비를 바로 한 것은 아니다.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일주일 내내 술을 먹기도 하고, 시험 전날에도 술을 먹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년이 지나갔다. 그사이 군대도 갔다 왔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였는지 놀고 싶었기에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놀았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하나 없고, 지금은 놀때다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알바하며 번 돈으로 무작정 놀았다.

그러다 25살이 된 겨울방학 때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너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이 아까워서 환경을 한번 바꾸어 보자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3학년이 되기 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그 머나먼 호주에 가니 그제야 내가 보였다.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호주에서는 새벽 4~5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 출근을 한다. 그 시간대면 나는 늘 자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을 시간인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당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행동들과 표정을 보니 지금껏 나는 뭐하고 살았나 자책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영어를 잘해서 호주를 간 것이 아니라 내 방향성을 찾고자 간 것이기에 말 그대로 연고도 없는 곳,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무작정 간 것이었다. 다만 목표는 있었다. 호주에 있는 1년 동안 영어, 돈, 여행, 방향성 이 4가지를 얻는 것이 내 목표였다. 영어가 안 되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뿐이었다. 화장실 벽과 바닥에 있는 타일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고, 당연히 시작은 데모도(보조, 잡일 담당)로 하루에 13~15시간씩 주 6일을 8개월간 지속하였다. 타일을 하면서 돈을 얻었고, 그 돈의 일부로 여행을 다니면서 두 가지 목표가 채워졌다.

그리고 문득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한 달에 못해도 한화 400만 원 정도를 벌고 기술자가 되면 700~8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고민되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지 않았

다. 직업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몸을 쓰는 일과 머리를 쓰는 일이 있다. 둘 다 쓰긴 하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치우쳐 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언제 은퇴를 할지도 모르고, 내 생활도 없이 돈을 번다는 것은 내 방향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세 번째 목표인 방향성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영어는 이루지 못한 채 한국어로 귀국하게 된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자격증 하나 가진 건 없지만 하루빨리 시작하여 같은 선상까지만 가 보자는 게 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같은 선상까지의 수준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취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하나씩 뜯어보았다. 하나씩 뜯어보니, 나와 같은 나이와 학년들이 평균 금융 자격증 2, 3개를 취득한 상태에 꾸준히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물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였지만, 이미 목표는 분명했기에 바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다.

나보다 몇 년 전부터 준비했고, 대부분 나보다 학력이 높았기에 빠르게 자격증을 따고자 내가 한 방법은 의지와 열정이다. 이게 무슨 방법이나 생각하겠지만, 누구나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늦은 것을 알았기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했다. 누구나 의지와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의지와 열정은 기간이자 스피드이다. 남들 하나 준비할 때 두 개, 세 개씩 준비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내가 취득해야 할 자격증 시험일자가 11월 15일, 11월 29일, 11월 30일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자격증 하나만 선택하여 취득한다면, 다른 것은 더 미뤄진 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방향의 의지가 시들해질 수 있다. 한 달에 자격증 세 개를 한 번에 준비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로 보인다. 하지만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 봤자 이미 출발선상이 다른 경쟁자들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무리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뒤가 없이 준비를 하고자 한 내 의지와 열정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공부 시간

을 늘리기 위해 잠을 줄이고 핸드폰을 꺼 놔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하는 것이 있어 시간도 자격증에 오롯이 쏟기에 적당했다.

무리한 것도 맞고 독하다면 독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해 보니 어느덧 비슷한 선상에 올라왔던 것 같다. 여기서 더 가속도를 붙여 더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하였고, 8개월 정도를 자격증에 시간 투자한 후에 4학년 2학기 넘어가기 전 여름방학 때 서울 금융권(미래에셋)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내가 취득한 금융관련 자격증만 보자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산운용사, AFPK(재무설계사), ERP 생산 정보관리사, FAT(회계1급)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토익을 공부 중이고, 다른 자격증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대외 활동인 공모전도 꾸준히 준비하였다.

자기소개서에서 면접까지

나도 면접을 처음 준비할 때는 당연히 1분 자기소개를 준비했다. 이것은 본인의 삶과 성격을 토대로 경험을 녹여내야 하고 회사에 맞는 인재상을 적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끔 남의 것을 베끼거나 자신을 부풀려서 쓰는 경우가 있다. 서류 한번 통과하지고 쓰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면접을 볼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의 땀과 노력들이 담겨 있어야 면접 때 막힘없이 답변을 해 나갈 수 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면접까지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자기소개서에 쓸 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뭐라도 해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태도와 대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당연히 자기소개를 잘 준비하였고 회사의 인재상, 회사에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고 갔다면 문제가 생길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 준비의 철저함이 면접에서 자신감이 될 것이고, 그 자신감이 말투 하나하나 스며들게 되면 면접관들도 그러한 자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자소서와 면접을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많이들 찾아보고 활용을 하실 거라 예상된다. 요즘 면접관들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면접은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씩 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볼 때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고는 하시되, 본인의 색깔을 꼭 묻어 내시기 바란다. 이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튀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내가 실제 면접을 위해 준비한 것은 궁금증 유발이다. 자기소개서와 1분 자기소개 발표에서 면접관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주제로 스토리를 이어 나가는 것이다. 나는 1분 자기소개에서 호주를 갔다 왔지만 호주를 갔다 왔다고 하지 않고, 외국을 갔다 왔다고 소개했다. 외국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질문을 하였고, 추가 질문이 준비한 대로 나왔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질문 유도와 함께 면접 자체를 본인의 페이스로 끌고 오라는 것이다. 정답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답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면접관들이 무조건 할 만한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가령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 꼭 본인이 뽑혀야만 하는 이유 등이 있겠다. 더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1분 자기소개와 예상 질문 답변을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안 된다. 면접에서는 떨림의 변수만큼 큰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답변을 통제로 외우면 그것도 티가 나기 때문에 외우지 않은 듯한 속도와 발음을 토대로 가벼운 느낌으로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핵심 단어에 주는 악센트와 문단과 문단이 넘어가는 사이의 텅까지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드린다. 혹시나 면접 중에 단어 하나, 문단 하나 빼먹었거나 틀렸다 하더라도 괜찮다. 더듬고 버벅거리어도 괜찮다. 면접관들이 기다려 준다. 다만 티내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면접관과 마주해야 한다. 떨어져도 괜찮다.

마지막 조언

고등학생 때는 수능만 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학교 가서 연애도 하고 공부만 했던 학창 시절을 보상받을 심리로 ‘엄청 놀아야지!’라고 많이들 생각한 만큼, 실제로 대학교에서 많이 놀 것이다. 노는 것도 정말 좋고 중요한데,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더구나 학벌로 보면 사회는 절대 공정하지가 않다. 사회는 구체적으로 잔인한 곳이다. 안주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자. 나도 건양대학교를 나온 입장에서 건양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면접관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은 무기를 갖춰야 한다. 힘들다, 바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 쓰지 않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진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지.

두서없이 작성해 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취업처를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경영대학 | 글로벌경영학부

사소하지만
큰 바람

솔브레인SLD(주) 조OO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앞으로의 미래에 막막해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취업 스토리를 작성한다. 조금이나마 많은 후배들이 이 글을 보고 공감하고 앞으로의 취업 및 미래의 준비 과정을 계획과 실현을 통해 슬기롭게 성공했으면 하는 사소하지만 큰 바람이다.

실패에서 기회로

현재 나는 한 중견회사의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렸을 때 그렸던 나의 미래는 지금이 모습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은 처음 겪었던 큰 실패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 나는 교사를 꿈꿨었다. 그래서 교육 봉사 활동, 내신 관리, 동아리 활동 등 사범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어린 시절 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것이 처음이었던 나는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고, 재수하기 전 대학 생활을 해 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아무 뜻 없이 무난하게 생각했던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입학 자체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해 준 프로그램들이 나에게 실패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만들

어 주었다. 당시 신입생들에게 진행되었던 리더십캠프 활동으로 학우들과의 교류, 소통 능력,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 등 앞으로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학교와 학과에서 진행되었던 초청강연 및 행사 다양한 활동 등이 이곳을 입학함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 추후 나는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되어 있었고,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그럼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본다.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라

‘후회 없이 삶을 살자.’ 지금까지 많은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좌우명이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과거를 되새겨 보면 아직도 후회하는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때 이렇게 할걸….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실패를 통한 후회는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 삶의 비법이 된다. 그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바로 목표 설정이었다.

목표를 세우고 바르게 실행시키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아무런 꿈이 없거나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특히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는 친구들은 방향성이 보이기에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잘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꿈이 없는 친구들은 목표를 세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다. 내가 그랬었다.

지금 꿈이 없고,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엔 무의미한 한 부분이 되어 허탈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사회에서는 찾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

장점과 적성을 찾아 강점으로

자신의 장점을 통한 강점을 알고 본인의 능력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알아 뒤야 한다. 그러다 보면 꿈이 없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관한 활동을 통해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해 동기 및 선배들과 교류를 쌓는 일이 즐거웠다. 그래서 학교와 학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는 꼭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기 및 선배들의 추천으로 1학년 과대를 맡게 되었다.

과대를 하면서 이 활동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고, 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보 람찼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장점과 적성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강점으로 키우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다. ‘학교 내에서 나의 역량으로 최고로 이룰 수 있는 게 뭘 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던 내가 자신에게 주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총학생회 활동이었다. 다양한 활동,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학 교 프로그램 기획 등 나의 적성과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총 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총학생회장이라는 타 이틀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값진 결과를 얻기까지 그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리더십과 책임감, 업무 능력, 조직 관리 등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다.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직행동론’, ‘HRM’, ‘리더십’ 등 강의를 신청하 여 교육을 듣고, 동아리나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을 만들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 그 외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를 이뤄 냈다.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취업을 바라보는 방향은 좀 더 수월해졌다. 경영학을 전공 을 두고, 총학생회 경험을 통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 렇게 본인의 적성을 찾고 나면 미래를 향해 세울 수 있는 목표가 조금씩 뚜렷해 진다.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면, 본인의 적성부터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

학생의 본분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취업에 있어 성적은 그 사람의 대학 생활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을 다 만점 받으라는 뜻도 아니다. 간단하게 기본은 해야 된다는 말이다. 회사 입장에서 성적이 높은 사람이 먼저 보이기도 하겠지만, 성적이 좋다고만 해서 뽑는 것도 아니다. 대학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수업을 제때 안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성적이 기본 점수조차 안 되어 있다면 성실하게 회사에 나올 인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대학교 1학년 시절 성적 관리에 많이 소홀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성적을 높이려고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장학금도 두 번 받았다. 그런데도 평균 성적이 3.5로 마무리되었다. 진짜 딱 기본 평균 점수였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성적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자격증 취득과 학교 프로그램의 활용

취업을 하기 전 많은 취준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 나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격증 취득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진짜 많았는데, 참여를 많이 못 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외 봉사 활동, 공모전, 교환학생, 토익 및 각 자격증 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참여를 못 했던 게 후회로 남는다. 학교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의 기회를 건네준다. 그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고 학교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려워하지 마

취업에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많다.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인적성 검사 등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을 당시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했었다. 아무리 여러 번 수정해도 남들의 시선에는 별로일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지인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

나는 면접에 있어서 자신은 있었다. 평소 남들 앞에서 많은 발표를 했었기에 떨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들어올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떨리지 않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마련이다.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연습하고, 긴장하는 사람이라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

취업에 앞서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수많은 취업 실패로 인한 자신감 하락, 남들의 시선 등 평소에 자신감이 넘쳐 있던 나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나뿐만이 아닌 모든 취준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느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삶의 지나온 한 추억일 뿐이다. 지금은 다양하게 부딪쳐 볼 나이라고 생각한다. 부딪치다 넘어지는 일은 많을 것이고 경험이 되기에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성공할 미래를 위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소한 바람이다.

글로벌경영대학 | 금융학과

늦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KORAIL(한국철도공사) 강OO

하면 된다

정말 뻔한 말이지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 ‘하면 된다.’ 예부터 사람들의 입에 버릇처럼 오르내리는 이야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궁금하고 독특한 재미가 있는 나의 취업 스토리를 통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고 싶다.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

나는 본래 경제학에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광활한 대지를 힘차게 가로지르는 기차에 무척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다. 하지만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고등학교 3학년, 경제 신문을 스크랩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꿈보다 그 가치관에 더욱 이끌려 건양대학교 금융국제학과에 지원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처음 입학 후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을 토대로 내 미래를 금융인으로 바꾸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내가 흥미를 느꼈던 금융은 경제학의 작은 면에 불과했으며

배워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광활했다. 또한 철도인이라는 꿈을 향해 도전해 보지 못했던 후회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다. 학업의 부진,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나에게 슬럼프를 안겼고 자신감과 자존감은 점점 떨어져 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 신문을 읽고 그에 대한 견해를 펼치는 학과 동아리 활동인 이코노미스트에 참여하여,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학에 대해 배워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진한 학업 성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선배님들에게 전공과목을 배울 수 있는 멘토링 수업에 참여하여 부진한 학업 성적을 높여 나갔다. 또한 떨어지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리고자 금강종주 및 극기 훈련에 도전하였다.

이 경험들은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나를 만들어 주었다. 이를 계기로 생긴 등산, 러닝의 취미는 지금의 직장인 한국철도공사, 전 직장인 새마을금고에 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슬럼프를 이겨 내고 있던 그 시점, 입대 영장이 날아왔고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말로 벌어먹는 직업을 해라.”

내가 20대가 된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군 복무 시절 나는 간부, 동기 할 것 없이 두루 친하게 지내며 군 생활을 했다. 간부님들과 친해지니 군대 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소식을 타 병사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었고, 말을 재미있게 잘한다는 나의 평판은 상급 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는 기회도 안겨 주었다. 수많은 인파 앞에서 군 생활 당시 내가 만나기 쉽지 않은 높은 위치의 간부님들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는 나 자신을 보며 나 자신의 장점을 확실히 잡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나는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영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처음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나를 소개하는 과정도 돌이켜 보면 하나의 세일즈였으며, 회사에 원서를 넣는 것도, 최종 과정인 면접도 역시나 나라는 사람을 그들의 마음과 니즈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영업이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우선 내 말에 더 효과를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전역 후에도 웅변 대회, 독후감 낭송 등 모든 언변의 기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대화에 집중을 늘리는 스킬을 배우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 2급을 취득했다. 또한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며 내 지식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금융학과의 신문스크랩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교단 위에 올라 내가 준비한 경제 이슈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활동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내 말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능력을 길러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취업 캠프 ‘내일을 잡아라’에 참여하여 전 참가자 중 2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입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금융의 꽃, 영업

대화에 자신이 생기고 누군가 장점이 무엇이나 물어보았을 때, “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나지만,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며 이를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4학년이 되고 돌아본 나는 자신감만 있을 뿐 현재 취업 시장에 필요한 학점, 자격증, 토익 등 어떤 것조차 달성되어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슬럼프가 찾아왔다. 나는 지금의 취업 시장에서 단지 “말뿐인 실속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를 빠르게 타파해 나가야 했다. 첫 번째 슬럼프에서 배운 나의 장점 찾기는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학점을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 발표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을 찾아 들으며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말뿐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대외 활동을 준비하던 중 금융학과에서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세일즈 전문가 육성 인턴십 프로그램인 SPAC의 설명회를 개최한

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모든 대외 활동에는 배울 점이 있으니 관심을 기울여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여러 학생들이 설명회장으로 향했다. 설명회에 참가해 궁극적으로는 보험설계사로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마음속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도전하지 않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 나와 후배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원서, 면접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SPAC 인턴 과정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 알맞게 제공해 주는 영업은 곧 금융의 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영업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보험에 대한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술 수 있었다. 내 고정관념과 달리 보험은 금융을 구성하는 세 개의 틀 중 하나였고, 이때의 깨달음은 훗날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고객에게 알맞은 공제 상품을 제공하여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남들의 시선이 아닌 그 판단에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고정관념으로 인해 은행원이 꿈이라고 은행의 대외 활동만 고집했다면 결코 이런 값진 경험은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정말 내가 원했던 행원의 꿈은 더욱더 멀어졌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나의 꿈을 가지고 정진하는 후배들일지라도 맹목적 목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고, 내 장점을 더욱 키워 주는 활동이라면 전혀 다른 분야일지라도 내 판단을 믿고 도전해 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략으로 이루어 낸 첫 입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인턴십 활동 란에 기재할 사항이 생겼지만, 그뿐이었다. 여전히 토익 점수는 없었고,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자격증도 없었다. 원서는 실전이었고 내 스펙은 아직 모두가 원하는 대기업,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다. 내 주변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원서 넣는 것을 꺼리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다. 써 봤자 떨어진다고.

다들 준비를 하고 놓겠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넣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많다. 내 상황을 정확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게을렀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이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우선 토익가산점이 없는 기업의 원서를 준비하고 그 기업의 인적성, NCS 책을 수십 권씩 풀었다. 내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원서를 넣은 결과, 새마을금고의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그렇게 원했던 금융인으로서의 사원증을 목에 걸 수 있었다.

도전으로 이루어 낸 두 번째 입사

새마을금고에서의 회사 생활은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내 꿈이었던 금융인으로서 고객에게 알맞은 니즈를 제공하고 고객의 만족을 바라보며 환희를 느꼈다. 학생이 아닌 금융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다. 영업은 재미있었고, 대출과 같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금융은 흥미를 더욱 유발했다. 재미있고 흥미 있던 금융이 업이 되니 실적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실적을 채우는 것이 불편하거나 걱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적을 채우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랐고, 늘어나는 급여와 상사의 인정은 더욱 높은 실적으로서의 갈망을 이끌었다.

어느덧 출근하는 내 머릿속에는 사람을 위한 금융이 아닌, 실적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이 가득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고 꿈을 이루었지만 허탈했다. 욕심을 버리고 싶었다. 공익을 위한 일이 하고 싶었다.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평소 즐겨 하던 기차 여행을 했고 오래된 내 꿈이 생각났다. 한국철도공사, 내 욕심 없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철도, 내 장점을 따라 걸었던 꿈이 아닌 내 오래전 꿈에 대해 도전하고 싶어졌다.

한 번의 취업의 문을 열었던 나였기에 또 다른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끊임없이 도전한 나에게 도전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5시 30분 퇴근 후 8시까지의 업무 공부를, 10시까지의 새로운 꿈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후회 없이 도전했고 또 한 번의 취업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렇게 지금은 내 욕심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민과 국민을 잇는 대한민국의 발로서 한국 철도공사에서 힘차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학생에게 학교는 항상 열려 있다

새마을금고부터 한국철도공사까지 입사의 성공에는 개인적인 노력도 많았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 주는 데에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학교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입사의 시작인 자기소개서는 학교의 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고, 입사의 가장 큰 핵심인 필기시험은 방학 때 교수님께서 열어 주신 해커스 NCS 메인 강사분들과의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입사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것은 매시간 발표가 필요했던 전공 수업들과 면접관들에게 나 자신을 세일즈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준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다. 이처럼 학교 내에는 그 상황에서는 알지 못했던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다. 단순히 학점과 학과 생활에만 매여 있지 말고 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하면 되더라! 해 보고 얻는 실패의 좌절은 훗날 내 성공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해 보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이 스토리를 읽는 친구들은 늦지 않았으니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글로벌경영대학 | 금융학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기

새마을금고 백OO

취업은 장기전, 목표 설정을 빠르게 하자

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고등학생 때부터 하게 되었다. 농협에서 일하셨던 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부족하지 않을 만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를 위해 가장 처음 방향을 잡은 시절은 고등학생 때였다. 고등학생 때 경제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대학 입시를 금융학과로 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희망하는 직종은 오직 금융기관이었다. 목표를 빨리 잡았기에 내 학교생활은 금융권 자기소개서에서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게 수업, 학과 프로그램, 대학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등 모두 금융기관의 인사담당자가 눈길이 갈 수 있게 준비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금융권에서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뢰를 쌓는 방법 중 하나는 소통이라는 판단에,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대외 활동을 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렇게 나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할 수 있는 직업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해 목표를 잡고 대학생활 4년이라는 시간 동

안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목표를 향해 길을 만들지 않고 4년을 지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며 결국 남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만 만들어 낼 뿐이다. 대학생활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강점과 약점 찾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운도 있겠지만, 나만의 전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나만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나의 학점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 할 정도로 좋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은 낮은 성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즉, 보통 취업하는 데의 과정은 1차 서류 및 자기소개서 작성,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과 같이 진행되는데 3차 면접은 자신 있었지만 1차 서류에서 걱정이 됐다. 취업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고, 다수인 만큼 각자 보여 줄 수 있는 게 다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두드러지게 잘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요즘처럼 취업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만 경력자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와 같이 경쟁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하려 하기에 경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정규직에 도전을 하면, 나는 조금 우회해서 비정규직으로 경험을 쌓고 정규직이 되어 보자'는 생각을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 약점은 좋지 않은 성적이고, 내 강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이다. 마침 농협채용 홈페이지에서는 수시로 계약직 직원을 뽑았었고, 1차 서류 및 자기소개서 작성, 2차 면접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치면 계약직 직원이 될 수 있었다. 1차 서류는 학점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서 더 자신이 있었고

면접까지 수월하게 끝내서 바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쌓은 경험으로 내 약점인 성적을 보완할 수 있었고, 다른 공채 준비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더 할 말이 많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직무 관련 기초 지식을 쌓은 동아리 활동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신문 스크랩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기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이다.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은 쉽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에 조금 빠르게 갈 경우,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면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취업을 준비하려고 뉴스 기사를 본다고 하기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신문 기사 읽는 것은 신문 스크랩 동아리를 통해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문 스크랩 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 고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협의해 미리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준비한 후 그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며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동아리 활동이다. 당시 동아리 회장을 맡았던 나는 모교가 근처에 있어서 협약을 맺어 매주 방문할 수 있었다. 요즘은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쉽게 생각하고 대충 준비해 가면 되레 고등학생들에게 역질문을 당하며 학생들에게 배우고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교의 선배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 방문하기 전 미리 동아리원들이 모여서 주제와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며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바로바로 채워 나갔다. 그러다 보니 최신 뉴스,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모두 자연스럽게 자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직무 관련 기초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문 스크랩 동아리를 통해 경제 상식을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었고, 경제 상식을 위해 따로 시간을 소비하며 공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방학을 활용한 취업캠프

개강을 하면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준비를 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종강 후 방학에 해야 한다. 나는 예전부터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하고 싶었다. 노는 시간 없이 바로 취업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방학이 되면 틈틈이 취업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다.

방학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주최했던 취업 캠프였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 전국에 모인 취준생 및 대학생들과 속삭이를 하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학기 중에는 참여하기 어려웠다. 취업캠프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처음엔 정말 캠프에 간 것처럼 가볍게 느껴져 적당히 배우며 즐기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 취업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참고하려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막상 취업캠프에 참여하니 분위기는 1년 내에 꼭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변하게 되었다.

각자 조가 정해졌고 조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등에서도 대부분이 나보다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나는 정신이 들게 되었고 그 무리에서도 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질 것 같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배웠다. 방학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휴식만 취했다면 정신 차리지 못했을 텐데,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 준비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공채에 지원해 보기

공개채용은 1년 내내 여러 기업체에서 실시한다. 이때 아직 취업할 준비가 안 됐다고 내년엔 해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취업 준비를 위한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해 볼 것을 추천한다. 공채에 지원하여 1차에서 떨어지든 3차에서 떨

어지든 그 과정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매우 많다. 1차에서 떨어지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체크할 수 있고, 작성하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과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자기소개서는 지원을 많이 한 만큼 더 빨리 쓰고 더 잘 쓰게 된다.

만약 자기소개서에 합격한다면 필기에서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시험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등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처음 필기시험을 볼 때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나만 못 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만약 필기시험까지 통과하고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면접장에서는 평소 알던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익숙해지면 내 행동과 말이 자연스럽듯이 미리 공채에 지원해 보며 내 행동과 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끝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많은 것들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실제로 나도 해커스에서 직접 와서 NCS 교육을 해 준 덕분에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문제를 시간대로 나누어 푸는 방법,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각 과목마다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인강을 듣지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내지 않고 직접 보게 되어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첨삭 및 모의 면접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패해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길 바란다.

글로벌경영대학 | 세무학과

나를 잘 알고
도전하는 삶

금산군청 이OO

1학년, 학업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다들 공감하겠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하고 대학을 입학하여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일까? 나도 1학년 때에는 공부를 소홀히 하고, 대신 교내에서 동기들과 친해지고 선배님들을 알게 되고 각종 행사 등을 참여하는 경험에 주로 몰두했다. 1학년 새내기 시절에는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20살을 기준으로 향후 5~10년이 지난 후를 생각하면 그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후회가 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주 여행 가기, 스쿠버 다이빙 해 보기, 패러글라이딩 해 보기, 제주도 1달 이상 살아 보기 등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2학년, 학업과 자격증 공부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 2013년도에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21개월의 군 생활을 했다. 1년 9개월 동안의 군 생활 후 제대할 즈음에는 사회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 제대 후에는 학교 복학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 감각을 다시 끌어올렸다.

군대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2학년 복학 후에는 1학년 때보다는 학업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2학년 1학기가 끝난 후 방학 기간에 건양대학교 교내에서 진행되는 토익팍팍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달간 교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토익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500점대였던 토익 점수가 800점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큰 성취감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공부를 하기 위해 약 2년간 대학교를 휴학하였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기도 했으며, 직접 서울 강남에 있는 학원에 가서 실강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에는 실패했다. 시간, 돈 등은 다 무의미하게 되었지만, 좋은 경험을 해 봤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좌절감을 떨쳐 내려 노력했다.

취업 준비를 위한 경험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였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았다. 다시 학교생활을 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학점을 조금씩 관리했다. 그렇게 3학년, 4학년 1학기까지의 시간은 지금 생각해 보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물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토익 시험도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시험을 보곤 했고, 졸업 여건에 필수였던 ITQ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3가지를 A등급으로 취득하여 ITQ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또한 취득하였다. 전공자격증으로는 ERP회계관리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하였다.

과 특성상 그때 당시에는 ERP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산세무, 전산회계, 재경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많이들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2학기를 다니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어디에 취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어렸을 적부터 친한 친구의 소개로 대전에 소개하고 있는 OO

금융기관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여 면접까지 보게 되었으나, 졸업 요건 미충족으로 조기졸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못 했던 기억이 있다.

취업에 정답은 없다

이렇게 또 기회를 날리고 어느 곳에 취업할까 고민하던 중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머리를 스쳐 갔다. 대전에 있는 OO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도우미, 소득세 신고도우미, 연말정산 및 근로장려금 도우미 등의 실습을 했던 경험이 기억났던 것이다. 그곳에서 실습을 하던 동안에는 물론 약성 민원인들도 있었지만, 같이 일을 하던 공무원분들이 좋았으며, 근무 환경 또한 나에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말쯤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주로 교내 도서관, 동네 도서관, 스터디카페, 집에서 공부했다. 다른 학생들처럼 노량진에 가지는 않았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던 나는 노량진에 가서 혼자 공부할 자신도 없었으며, 다른 유혹거리도 많은 데다 돈도 많이 깨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실강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는 편이다. 실강은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내가 잠시 판짓을 하거나 하면 메모를 못 하는 등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인터넷 강의는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활용할 만하다. 공무원 공부라는 것이 요즘처럼 인기가 많아 경쟁자가 많은 환경이나 공부할 양이 많은 시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병행된다면, 누구라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으며, 무엇을 잘하는지를 대학 생활 동안 알아 가기 위해 노력했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업에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 인지를 아는 것이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도전이란, 무엇이든 해 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칠 때 손님 응대나 사람 상대를 잘한다면 그것은 영업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 잘 맞다는 뜻이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버겁다면 그것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직업이 어울릴 수도 있다는 뜻이며, 예를 들면, 연구원, 작가 등이 있다.

그리고 굳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필요도 없다. 공부하다 보니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나와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직업에 있어서 귀천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도 더 오래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이 장황했지만, 후배님들 다들 원하시는 곳에 취업 잘하셨으면 좋겠다. 지방 직 세무직 공무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다들 취뽀하시길 바라겠다. 파이팅!

글로벌경영대학 |
세무학과

후회 없이
열정으로

(주)세라잼 장OO

걱정 없이 놀던 1학년 시절

나는 2014년 건양대학교 세무학과에 매우 압담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입학 성적도 열등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나는 노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게다가 그 시절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것인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1학년 시절엔 친구들과 하루하루 아무 걱정 없이 놀며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는 학사경고였다. 아무나 못 받는다는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당시의 나에게겐 충격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도 2학년 1학기 군 입대하기 이전까지 정말 생각 없이 놀았다. 그 결과 평균 학점은 2점 후반대를 기록하였고, 훗날 복학 이후 나는 이 시절을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후배들이 있을까 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고 싶어서 취업 스토리를 작성하게 되었다.

토익 300점에서 850점이 되기까지

대책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2학년 1학기를 마친 나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

었다. 아마 그때부터 내가 조금씩 철이 든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당시의 나는 확실한 진로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군대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스펙엔 무엇이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나는 일단 뭐라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취침 시간이 시작한 이후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연등이라는 것을 매일 신청했다.

그렇게 내가 시작한 것이 토익 공부였다. 학과 내에서 토익 점수가 높으면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졸업 요건 중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하자!’라는 심정으로 토익 기본서를 구입해서 무턱대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1학년 때 학교에서 치른 토익 시험의 점수는 300점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점수도 없으니, 그 당시의 나는 자신이 있었다. 군대에서 1년 동안 틈틈이 공부한 결과, 나는 300점대에서 시작하여 850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 당시 학과에서 운영하는 H4C라는 장학제도를 통해 50만 원의 장학금도 수령함으로써 이때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 생활의 터닝 포인트

군 제대를 하고, 2학년 2학기 대학교에 다시 복학한 나의 머릿속엔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바로 학점이다. 나의 평균 학점 2.6을 보며 과거의 철없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가슴이 아릴 만큼 후회했다. 하지만 포기하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이라 생각했기에, 정신 바짝 차리자고 매번 나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시작한 2학년 2학기는 내 대학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나는 모든 전공수업과 교양수업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했고, 수업 중 잡담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필기했으며, 놓친 부분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나만의 시험 대비 필기 노트를 정리했다.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절대 지나치지 않고, 수

업이 끝난 이후라도 교수님의 연구실을 매번 찾아가 질문했다. 이 녹음과 끝까지 질문하는 태도가 내 성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저녁엔 도서관에서 그날 배운 전공 수업의 내용을 복습했고, 모든 식사는 도서관과 같은 건물에 있는 교내 지하 식당에서 해결했다. 매일 늦은 시각까지 도서관에서 보내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몸은 지쳤었지만 늦게까지 술 마시며 놀고 집으로 내려올 때와는 반대로 마음만큼은 편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는 아르바이트와 학습을 병행했다. 주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운이 좋게도 해당 점포의 점장님이 손님이 없을 땐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총 20시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월요일엔 다시 밤낮을 바꿔서 학교를 다녔다. 매주 밤낮을 바꾸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돈을 벌며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결과적으로 나는 졸업까지 2년 동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는 2학년 2학기에 총 평균 4.44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교양 한 과목에서 A0학점을 받아 만점인 4.5점을 받을 순 없었지만, 직전 학기의 학점이 2.6점이었던 나에겐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이었다. 학과 동기 친구들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신기해했고, 꼴찌의 이미지였던 나는 점점 친구들에게 ‘조별 과제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로 변해 갔다.

선택과 집중으로 파죽지세

높은 학점의 맛을 본 나는, 공부라는 것은 한 만큼 성과로 돌아온다는 것과, 높은 학점을 위해선 똑똑하게 높은 효율을 내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쉽게 말해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루에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진다. 나는 수강하는 모든 전공, 교양 과목을 중요성을 기준으로 나열한 뒤, 공부 시간을 배분했다. 전체적으

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공부량이 어느 한 과목에 쏠리거나, 혹은 부족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C학점에서 A+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10시간이고 C에서 A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5시간 이라면, 한 과목에 올인하여 A+와 C를 받는 것보다 2과목에 5시간씩 배분하여 A와 A를 받는 것이, 총 학점의 측면에서 좋은 성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의 질에 따라서 공부의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필기에 성의를 다했다. 학기를 마친 뒤, 나는 방학 중엔 계절학기를 신청하여 1학년 때 수강했던 낮은 학점들의 과목들을 재수강하였다. 재수강은 일반 수업과는 다르게 최고 학점이 A0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는 있지만, 기존의 낮은 C, D의 학점을 노력만 하면 A0까지 올려서 총 평균 학점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총 8학점을 신청하여 모두 A0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 총 평균 학점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격증 취득하면 장학금을?

계절학기까지 마치고 3학년이 된 나는 학점을 유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하루빨리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이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학우들과는 달리 나는 오직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스펙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또한 세무학과를 전공한 나는 무조건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첫 번째로 힘썼다.

회계 직무는 실무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면접과 서류 전형에서 차별화를 가지려면 회계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더욱이 우리 건양대학교에선 H4C라는 자격증 장학제도가 운영 중이었다. 학과에서 지정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이게 또 나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당근의 역할을 해 주었다.

나는 남은 대학교 2년간 결과적으로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을 취득하여 38만원과, 이에 토의 점수를 통한 장학금 50만 원까지 총 88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등록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며 대학교를 다닌 셈이었다.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통장에 돈이 꽂히니 성취감도 컸고, 훗날 내가 취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장학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졸업부터 취업까지

이후 나는 졸업까지 조금도 식지 않는 열정을 유지하며 공부했고, 총 평균 학점 3.7이라는 무난한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2학년까지 2.6이었던 학점을 3.7까지 끌어올린 것이기에 나는 노력한 만큼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학점에 더 이상 후회는 없었다.

졸업 이후 나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자는 생각에 무난한 이력서를 하나 작성해 놓고, 나만의 기준을 정한 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내가 정한 기준은 1) 연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2) 제조업이어야 하고, 3)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혹은 상장된 중소기업이었다. 총 10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고 그중에 6곳 정도에서 면접 요청이 왔다.

가장 첫 순서로 면접을 본 곳이 지금 다니고 있는 (주)세라젠티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보다 더 가고 싶은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첫 면접에 최선을 다하되 떨어지더라도 이번 면접을 경험 삼아 다음 면접에서 합격하자는 마인드로 면접 준비를 했다. 3일이라는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모든 시간을 면접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외우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면접 당일 날, 나는 다행히도 걱정한 만큼 긴장하지 않고 면접에 자신감 있게 임했으며, 며칠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요새 가장 큰 문

제가 취업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느꼈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취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움츠러들지 않고 수많은 기업들에게 내 이력서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부족하지만 솔직한 스토리가 후배님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의 방향을 잡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군사경찰대학 |
국방경찰행정학부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경찰공무원 김OO

꿈을 위해 앞만 보고 쫓아가다

경찰을 꿈꾸는 후배분들을 위해 글 솜씨가 좋지 않지만 글을 남겨 본다. 나 또한 공부하며 합격 후기 및 선배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공부하며 합격을 위해 간절히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며 꿈을 위해 차근차근 다가갔던 추억이 있어 열심히 적어 본다.

나는 어려서부터 군인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제복을 입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자라 왔다. 나의 특기이자 취미는 달리기다. 학창 시절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지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나의 장점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나의 장점을 지켜봐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과로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을 끊임없이 추천받았고 나에게 맞는 제복은 경찰 제복이라고 다짐하며 그때부터 꿈을 다져 왔다.

그리하여 나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우리 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에 입학하여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하였다. 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때는 처음부터 선배님들을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행동하려 했다. 우리 학과에는 고시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시반 선배들과 어울리며 군대를 다녀온 후 먼 훗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전역 후 고시반에 들어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꼼꼼히 기록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였다. 물론 열심히 대학 생활하면서 놀기도 하고 술도 열심히 먹었다.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험장으로 뛰어든다

입대 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나는 전역 후 휴학하여 가장 먼저 가산점과 공부의 흐름을 잡기 위해 집 앞 시립도서관에 다니며 밑거름을 만들었다. 나는 태권도 2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영어(토익, 지텔프)와 실용글쓰기 중에 고민하여 실용글쓰기를 준비하였고 짧은 시간에 가산점 5점 만점을 채우고 맘 편히 공부를 시작하였다.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내가 부제목에도 달랐듯이 ‘철저한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산점을 모두 채우고 공부와 운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 먼저 초시생(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수험생을 지칭하는 말)일 때는 필기의 비중을 7, 체력을 3으로 생각하며 수험 생활을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우리 시험은 체력 비중이 정말 크므로 흔히 수험생들끼리는 ‘필기는 입장권일 뿐’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체력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앞서 말한 비중으로 수험 생활 초시 생활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초시 생활 때의 계획을 말해 보자면, 합격생들마다 다르기에 주관적일 수 있지만 나는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항상 계획을 6개월 기준으로 잡았다. 2개월 기본 이론, 2개월 기출 심화, 2개월 문제 풀이 및 정리. 나는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세부적으로 공부 계획을 짜고 다듬어 갔다. 앞서 말한 것처럼 2개월씩 나는 것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나누는 방식을 토대로 짜 본 것이다.

나는 사람 많은 곳에서 공부를 못 하는 편이라 혼자 공부하기에 학원에 방식을 참고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공부했다. 물론 합격생들을 보면 얼추 다 비슷하게 공부한 것 같다. 크게 2개월씩 계획을 짜고 세부적으로 월~토 주 6일의 계획을 세웠

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오전에는 영어 3시간, 오후에는 법 과목 4시간, 저녁에는 한국사 3시간, 하루 10시간 계획을 정해 두고 공부를 하였다. 처음에는 강의에 의존을 하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체크해 두고 넘어가며 빠르게 책을 여러 번 회독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맞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부터 했다. 처음에는 10시간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처음 수험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다. 공부하다 지칠 때쯤 운동 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적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6개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초시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게 된다. 밀바탕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높이 올라갈 일만 남게 된다. 나는 6개월 이후부터 인강 의존도를 줄이며 기출문제집을 바탕으로 기본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나는 학교로 복학하여 2학년에 고시반을 들어가게 되었고, 어떠한 조건보다 공부하기 좋은 여건이 갖춰지게 된 시점이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스스로의 학습이 가능하고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공부하는 선배들, 동기들이 있기에 경쟁 의식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학교 고시반에 들어와 내가 집에서 공부해 온 습관과 입대 전 고시반 선배들로부터 보고 들었던 노하우를 접목시켜 공부를 시작하였다. 같은 기출문제집과 기본서를 시험보기 전까지 10회독은 하고 가자는 생각으로 단순 반복을 시작하였고, 두꺼웠던 기본서의 단권화 작업을 시작하며 한 과목 책을 보는 데 2달이 걸렸던 것을 2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지로 올려 두었다. 요약하자면 계획의 핵심은 기본을 탄탄히 한 뒤 단권화 작업과 회독을 통해 부족한 점을 계속 메꿔 가는 것이다.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공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말로 이 하나에만 몰두하고 투자하기에도 벅차기에 오로지 내가 제복을 입

은 모습만 상상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공부 10시간, 운동 2시간 12시간을 사용하기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잠시 친구와 가족을 포기했다.

솔직히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고 항상 외향적이며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지금은 조용하며 조금은 내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못 보기에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나와야 싸움을 하며 이 악물고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점은 학교 고시반에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선배, 동기, 후배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주 6일을 공부하기에 쉬는 일요일에 가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숨통을 조금은 열어 주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명심해야 할 점은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시험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시험은 잠시 접어 두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뒤 오로지 이 시험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실패를 두려워 말자

나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총 3번 응시하여 3학년 재학 중 합격하게 되었다. 시험을 보고 난 뒤에는 정말 한없이 허무했다. 떨어진 시험에도 붙었던 시험에도 ‘아, 내가 이걸 보려고 6개월, 1년을 공부했나?’라며 그 많은 양을 공부하고 100분, 100문제로 나의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에 너무 막고생을 했다.

하지만 떨어진 시험들은 나에게 정말 크나큰 보물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파트를 분석하고 오답하며 그 또한 모두 내 것으로 만들며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마지막 합격한 시험을 볼 때는 정말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완벽에 가까워지려 노력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생긴다. 파이팅!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흔히 박명수의 어록이라고 부르는 말이다. 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다. 모두가 추구하는 삶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와 같이 확고히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관심을 갖고 기초 체력을 가지며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학교생활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는 경찰이 되어 있겠지? 안 되면 졸업하고라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맞다. 경찰은 본인이 언제라도 노력하신다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루기만 하다 나중에 조급하게 준비한다면 수험 생활은 더 길어질 것이고, 힘든 생활이 길어질수록 피폐해질 수 있기에 걱정된다.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나의 30년, 40년을 일하게 될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기에 신중히 판단하여 조금 더 일찍이 차근차근 밑거름을 만들며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꿈에 그리던 슬기로운 중경 생활!

현재 나는 경찰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중경에서 훈련과 교육 사이사이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정말 행복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설렌다. 여러분들도 꼭 합격해서 후배님으로 만나 뵙고 싶고, 힘든 시간 꾸준히 버티며 앞만 바라보고 자신을 믿고 달려오길 바란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충성!

군사경찰대학 |
국방경찰행정학부

차근차근
한 걸음씩,
군무원 최종
합격까지

행정직 공무원 조OO

하고 싶은 것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항상 대답을 얼버무렸고 대학생이 된 후에도 한결같았다. 시간이 지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뀐 “뭘 해먹고 살 것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대답하지 못했었다. 이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까지 겪은 짧은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 나와 같이 취업에 막막함을 느끼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취업 스토리를 적어 본다.

나는 앞서 말했듯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고등학생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시절 추리소설을 잔뜩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기에 막연히 경찰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며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에 진학했다. 하지만 진학 후 체력이 약한 내가 경찰을 준비해선 안 된다 생각했고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생각은 빨리 바뀌었지만 취업은 아주 먼 시기의 이야기라고 느껴져 나는 어떠한 자격증도 따지 않았으며 어떠한 대외 활동도 하지 않았고 여느 새내기와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놀러 다니기만 했다.

취업에 대해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된 것은 4학년 1학기 때였으며, 그때도 목표

를 정하지 못한 채 조급함만 느꼈다. 나는 4년 동안의 대학 생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불과 1년 전까지 이렇게 방황하던 내가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한다.

목표를 향해

4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 나는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 교수님과 상담을 했다. 교수님께서서는 취직하겠다는 나의 말에 NCS 책을 건네주시며 어떠한 공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고, 현실적인 취업 준비에 대해 듣다 보니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이 커다랗게만 느껴져 막막했다. 이에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의 끝에서 대학 시절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학점을 챙기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이에 수험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 내고 마음 한구석에 밀어 두었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공무원 시험 종류를 찾아보다가 내 취약 과목인 영어를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무원 학과에 진학하여 공무원 시험에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는다면 후에 후회할 것 같아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다짐했다.

2021년 공무원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운 후에 다시 교수님을 찾아뵈었고 나는 4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고시반이라는 스터디에 들어갔다. 고시반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 학생들이 오전 9시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곳이다. 목표를 세우기 전까지는 안갯속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답답함에 무기력해져 있었는데, 명확하게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학과의 지원을 받아 공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더욱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

고시반에 들어가 가장 먼저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토익 점수를 채우기 위해 공부했다. 2주 후 시험을 신청해 두고 1주일 동안 단어장 한 권과 이론서를 외

우고 남은 1주일 동안 토익 모의고사와 오답노트, 단어 암기를 하며 매일 10시간 정도를 공부했다. 군무원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토익 공부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목표를 정한 후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던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했고 이를 위해 처음 실천했던 토익 공부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기전이 될 수 있는 취업 준비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만의 방법 찾기

최종 목표를 세운 후 내가 본격적으로 군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들려주고자 한다. 평소에 모든 시험을 벼락치기 형식으로 준비했던 나에게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런 부담감을 이겨 내고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시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은 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켜 공부하는 것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해 줬다.

물론 처음에는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였기에 앉아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집중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과도한 계획을 세워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날에는 초조함에 공부 의욕이 오히려 저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방법인 순공시간을 정해 두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의 질보다 오히려 순공시간에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내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방법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 보고 실천해 본 결과, 나에게 한 달의 커다란 목표만을 정해 둔 채 유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중이 잘되는 날에는 더 많이 공부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날에는 적당한 휴식도 취하며 한 달 목표만 달성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군무원 행정 직렬 시험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영어와 한국사를 자격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비교적 과목 수가 적지만 결코 공부량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론을 빠르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인강을 빨리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과목당 약 9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약 두 달 안에 듣고자 목표를 정하여 하루에 평균 6~7개의 강의를 들었고 두 달 안에 인터넷 강의를 통한 기본서 1회독을 마쳤다.

1회독을 마쳤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이에 바로 2회독을 시작하였는데 2회독 때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직 이론을 잘 모르는 상태로 2회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두 달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목표로 하였다. 세 과목 중 특히 행정학을 회독할 때 낯선 이론이 정말 많고 양이 너무 방대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목표 기간 내에 회독을 마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과목당 30페이지는 보기로 다짐하였고 2회독을 마쳤으며 같은 방법으로 3회독을 했다.

3회독을 했음에도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남아 있진 않았지만, 기출 문제와 병행하며 내용과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자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했다. 기출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고 문제집에 달려 있는 해설과 기본서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했다. 기출 또한 달 목표를 세워 진도를 나갔고, 회독을 할수록 회독 속도가 빨라지며 중요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본서 3회독과 기출 문제집 6회독, 군무원 복원 문제집, 모의고사 15회 정도를 풀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성적이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틀렸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틀릴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겪는 일이고, 중요한 주제를 시험 전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 좋은 것이라 여기고 맘의 부담을 조금 덜어서 점수에 조금해하지 않고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레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면접은 혼자 할 수 없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합격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후 면접 준비를 하는 것에 나는 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필기는 공부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면접은 범위가 없었으며 평소 과제 발표도 굉장히 떨려하는 편이어서 면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이다. 면접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면접 스테디를 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스테디원들 모두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보다 자료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스테디만 진행하던 중 면접까지 채 일주일의 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교수님께 도움을 받아 모의 면접을 보고 코칭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목소리 톤부터 발성, 당황했을 때의 표정 등, 내용보다 더 중요한 비언어적인 부분들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교수님의 코칭에 따라 나의 모습을 녹화하고 녹음을 해 보니 직접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와 닿았고, 후에는 중요한 기출 질문을 중심으로 당황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접장에서 걱정한 것보다 떨지 않고 질문에 대해 평이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면접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의 내용을 완벽하게 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준비할 때에는 쑥스러워서 혼자 머릿속으로만 답변을 생각하곤 했다. 답변을 타인 앞에서 말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의 부끄러움을 이겨 내고 친구들, 스테디원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니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수험 기간 중 꾸준히 들려오는 친구들의 취직 소식에 조급함을 느꼈고, 그럴

수록 다가오는 시험에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아직 도전할 기회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을 것이라며 감정기복을 무던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험 생활을 비롯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결코 늦지 않았으니 조금해 말고 본인의 역량껏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말을 건네주고 싶고, 항상 응원하겠다.

군사경찰대학 | 군사학과

우리나라
영공수호의 주역
항공장교가
되기까지

육군 장교 이OO

항공장교에 대한 직업 소개

나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에 14년도에 입학하여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18년도에 학사장교 63기로 임관하여 현재는 양평군에서 조종사이자 항공장교로서 임무 수행 중이다. 나와 같이 육군 장교를 꿈꾸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조종사 그리고 항공장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나의 스토리가 후배들의 꿈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항공장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육군이라고 해서 모든 군인이 지상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근무하는 공중근무자들도 있다. 그 공중근무자들 중에서 헬기를 조종하며, 헬기에 장착된 각종 무장들과 장비를 이용하여 적 전차를 주로 파괴하고 장교로서 헬기를 이용한 전술 및 작전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해 지상전을 승리로 이끄는 미래 영공 수호의 주역이 항공장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항공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헬기를 조종하는 공간 지각 능력 및 빠른 반사 신경뿐만 아니라 지상전의 전술과 작전을 이해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 공중에서도 필요한 목표물을 볼 수 있는 시각 능력, 급박한 공중전 속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순간 대처 능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항공기 및 공중근무자의 특성상 교신 및 장비 이해 면에서 영어 어학 능력이 충분해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학교, 후보생, 그리고 장교임관까지

내가 항공장교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과 학교생활, 장교후보생의 생활, 항공 장교 선발 전까지의 군 생활, 지금 항공장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건양대학교 군사학과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장교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교로서 군사학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잠재 역량, 어학 능력,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체력 단련 등이 있다. 나는 그중에서 1학년 시기에는 체력에 많은 집중을 해서 특급전사가 되었다. 체력의 경우 한번 완성되면 쉽게 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체력이 강해짐으로써 다른 방면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며, 무언가를 이루고자 도전함에 있어서도 끈기와 열정,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체력이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체력 단련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건양대학교 군사학과의 경우 아침 점호와 동시에 매일 반복되는 3km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력이 만들어지며 1학년 2학기에는 당연하게 특급전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군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다.

2학년 때는 주로 어학 능력과 한자, 컴퓨터 등 각종 자격증 취득에 집중했다. 실제로 군사학과는 졸업 여건에 토익 800점 이상, ITQ마스터, 한자 2급이 반영되어 있으며, 앞서 말한 자격증들은 군의 장기 선발, 진급 선발, 항공장교 선발 등에 가산점으로 작용하여, 임관 후 각종 선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군사학과는 2학년부턴 방학 동안 토익사관학교, 토익집체, 오픽집체와 같은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사학과 인원의 80% 이상이 토익 800점 이

상의 성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인 한자 2급 취득 프로그램, 학점과 병행한 수강과목을 통한 ITQ자격증을 수많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본인의 의지 없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 대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효율을 보여 준다. 실제로 부가적인 학습 및 추가 비용 없이 토익집체 프로그램 자체에 야간자습 및 각종 초·중반 평가를 계획하고 프로그램 자체 일과표만으로도 개인의 학습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나 역시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결과 2학년을 끝 마칠 때에는 840점이라는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는 항공장교가 되기에 충분한 어학 성적이었다.

3학년이 되어서는 다방면에서의 시각과 군사 지식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집중했다. 군사학과의 경우 1인 1복수전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나의 경우 군 내부에서의 문화와 시스템, 각종 체계,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들에 대한 이해와 업무 이해를 위해서 국방공무원학과를 복수전공 했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복수전공으로는 정책학개론, 국방경제 등의 과목을 수강하여, 군인의 전투와 전쟁뿐만 아니라 정책과 경제에 대해서도 학습하며 지식을 배웠다.

또한 헬기를 조종하고 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지금, 육군에서는 비교적 큰 사업이며 막대한 자산이 소요되는 고정식 비행기(헬기) 사업의 정책과 경제적 효율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3학년 동안에 본 전공인 군사학과에서는 무기체계론, 군사전략, 전쟁사, 위기관리 등 군사 지식을 위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코브라헬기(AH-1S)에 장착된 각종 무장에 대한 사용법과 파괴력, 살상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략 및 전술 면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전쟁 양상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생활의 마지막으로 4학년 때에는 군사학과 임원이 되어서, 명예위원장으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군의 경우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인원이 모여 있으며, 각 계급에 맞는 직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 직책에는 크고 작은 책임 및

업무가 따라온다. 4학년 때 나는 명예위원장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동기들과의 관계, 후배에 대한 리더십, 교수님에 대한 팔로우십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당시 학교생활을 하며 미래에 임관해서 장교, 지휘자, 지휘관 또 부하가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을 그리면서, 나에게 대한 장점과 단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임관 후 소대장이 되었을 때, 부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인접 소대장에 대한 존경과 배려, 중대장님에 대한 상명하복의 자세로 생활하여 주위로부터 귀감이 되며, 나에게는 과분한 인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상급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기반이 되었으며, 항공장교 선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졸업 후, 나는 학사장교 후보생으로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후보생 교육 과정에서는 장교로서 갖춰야 할 체력 능력, 리더십, 정신전력, 사격, 인성 등의 평가를 진행한다. 허나 군사학과를 4학년까지 마친 나는 자연스럽게 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평가에서 역시 좋은 결과로만 보여 주었다. 허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동기들과의 전우애라는 것을 학교생활에서의 단체 생활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아무리 능력이 좋은 인원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단합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나와 같이 장교후보생으로서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티 내지 말고, 조용히 묵묵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내며, 주위 전우들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리더십이 바탕이 될 때 소대가 그리고 중대가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집중하며, 조직에 대한 더 큰 성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은 끝에 결국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거름이 되어 스스로에게 몇 십 배 더 큰 성과 달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나 역시 이러한 리더십 및 행동의 결과, 내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했던 것들이 돌

고 돌아 나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어 임관 당시 후보생 전원 중 교육 성적 2 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국무총리 개인상장을 수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과의 자랑이 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더 높게 되었다.

항공장교 선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그렇게 좋은 성적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난 후 내가 학교생활과 후보생 생활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토대로 부하들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존중하며, 상급자에 대한 상명하복의 자세는 나에게 대한 좋은 평가로 돌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동안 갖추었던 잠재 역량과 각종 능력은 각종 교육이나 선발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항공장교로 선발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한 내가 항공장교로 선발되기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졸업 때부터 이미 갖추어진 기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장교후보생들 중에서 아직은 임관 전이기에 뚜렷한 목표를 갖고서 준비를 하기보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임관 전까지 학교생활을 하고 교육기관에서도 단순히 합격만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후에 장기복무나 항공장교 등 중요 선발에 지원했을 때엔 눈에 보이는 자력 없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여 결국 대부분이 미선발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허나 군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부터 좋은 성적, 자력, 능력을 갖추고서 시작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교육 및 선발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며, 시작부터 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모여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후배 장교들과 후보생들이 임관 전까지 안일한 마음으로 군 생활을 준비하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가치를 상승 시켜서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시작의 차이가 언젠가 몇 배, 몇 십 배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항공장교로서의 삶

우선 대부분의 장교들이 장기복무의 꿈을 꾸며 첫 장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허나 장기복무 선발 없이도 항공장교로 선발되면 동시에 장기복무자로 전환되며, 앞으로의 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공장교의 경우 공중군무를 하여 육군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손에 쥌 수 있으며, 일반 병과의 장교들보다 위험한 임무 수행자이기에 20~30%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장기복무 장교 및 조종사로서의 자부심, 명예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여유가 삶의 여유로 이어지며,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군인이 항공장교이다.

군사경찰대학 | 군사학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육군 송OO

어릴 적 꿈이 현실로

어릴 적 단순하게 멋있다는 생각에 장교라는 꿈을 꾸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코엑스 취업박람회 건양대학교 부스에서 군사학과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큰 고민하지 않고 지원했던 기억이 난다.

나의 취업 스토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보일 정도인가 싶기도 하지만 건양대 군사학과로 입학 및 재학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다. 군사학과 특성상 학생 전 인원은 역량만 갖추게 되면 모두 임관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군사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군 생활 중에 적용해 장기 복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경험적 요소를 토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책임감을 갖자

‘책임감’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모든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군사

학과 생활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책임감이란 자신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하는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집단 전체가 교수님께 혼나는 등 학교생활에서 책임감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하며, 본인이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군사학과에서는 군인으로 갖춰야 할 자질들을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기 중에는 자격증 수업, 방학 중에는 영어 수업, 주기적인 체력 측정 등을 통해 내가 스스로 목표를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력자의 역할을 해 준다. 군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부대에 가더라도 상급자의 지시 사항에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임무 완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의 강점을 찾아서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많은 역량에는 리더십, 책임감, 체력, 술선수법, 희생정신, 군사지식 등이 있다. 물론 장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 및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점, 약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다. 군사학과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강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변의 동기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동기들 중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동기들과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상대적 강점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좋다. 나의 강점은 체력이었다. 물론 특출 나게 뛰어난 건 없었다. 하지만 나보다 체력이 뛰어난 동기들과 나 스스로 비교해 가며 체력을 키워온 기억이 있다. 그래서 군 생활 중 특급전사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고, 최정에 전투원으로 선발되진 못했지만 참가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뜻깊은 기억이

있다. 이렇듯 스스로의 강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군 생활 중 에 기회가 올 때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험으로 전문 넓히기

군사학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적응이 어느 정도 되고 나 면 남는 시간이 반드시 생긴다. 이때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들 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전문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건양대학교에서 직업과 연계된 해외문화 탐방 관련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 었는데, 이때 한국과 미국의 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 고,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 다시 대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군사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역량을 빨리 도달하고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전문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 이 많이 든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매일 하던 기초 체력 단련이 아닌 테니 스, 탁구, 족구, 축구 등 다양한 구기 운동을 미리 연습하고 잘하게 된다면 차후 군 생활하는 데에 있어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 다.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 총학생회 활동, 해외 위탁교육 등 많은 기회가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들을 꼭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군사 지식 전문가로

군사학과 내에서 4년 동안 다양한 군사 지식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때 배워 둔 것들이 나중에 군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나도 군사학 수업 시간마다 배운 내용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고 ‘도움이 안 되지 않 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막상 신임 장교 지휘참모 과 정 그리고 대위 지휘참모 과정 교육 동안 기본 배경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했던 기억이 난다. 수업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씩 천천히 정의 위주로 학습해 가는 것이 좋다.

또한 군 생활 중 자신이 맡은 직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다. 처음에 직책을 새로 맡게 되면 아예 모르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 전임자의 행동, 교범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하게 된다. 이때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내가 맡은 직책 기간 동안 나를 발전시키기보다 그 직책을 이해하다가 종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직책이 부여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처음 전포 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자마자 전임자나 또 다른 부대 전포 대장보다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 반복하여 주특기를 숙달하고 교범을 주기적으로 탐독, 모르는 부분은 상급자에게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특기 경연 대회 간 우수한 성적을 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맡게 되는 직책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군사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매일 아침 체력 단련 종료 후 ‘군사학과는 가족이다’라는 말과 함께 종료하곤 했다. 군대라는 집단 자체가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주의 성격보다는 단체 생활을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군사학과 생활에서도 단체 생활의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는 교수님의 모습 등을 보면서 공동체 생활을 배웠다. 같은 학번 누군가의 잘못은 우리 학번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 주셨고, 처음에는 ‘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혼나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같이 생활하는 동기인데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한 주변 동기들의 잘못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군 생활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후배님들, 교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과도해서 괴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자주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영어 공부, 학과 공부, 복수 전공, 각종 자격증, 학군단 생활까지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벅찼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수님 덕분에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장교가 된 것 같다. 교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장교로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하면 분명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변 동기들이 나중에 임관하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정말 많이 그리울 것이다. 만약 내가 다시 대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욱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이가 좋지 않거나 마음이 안 맞는 동기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오해를 풀고 사이 좋게 지내길 소망한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제외하고도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군 생활을 준비해 가고 있다면, 반드시 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는 것이 좋겠다.

PRIME창의융합대학 |
의약바이오학과

폭넓게 바라보기

C&R Research 김OO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말자

1학년 때부터, “토익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힘들지 않다.”, “토익이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항상 후배들을 위한 말을 전할 때 토익은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였다. 그렇기에 대학 생활에서 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1, 2학년 때는 토익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중요성만 알았던 것 같다.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고, 전공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재밌고 행복했던 1,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다가왔다. 점점 몇몇 친구들은 목표로 둔 토익 점수를 만들어 실습을 나가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들과는 달랐다. 토익을 놓고 있었기에 목표로 둔 토익 점수를 단기간에 잡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떳떳했고 기죽는다는 말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독서실에서 혼자 토익 공부를 하던 나는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도움과 충고가 필요했

던 나는 교수님께 면담 요청을 했고, 면담을 진행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나에게도 하락하는 시기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 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3학년부터 시작되는 취업 걱정, 토익 점수 걱정, 실습 걱정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를 충고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전해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 나의 고민을 들어 줄 수 있는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가끔 나에게 연락 오는 후배님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한마디라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 여러분도 좋은 말이든 나를 기죽게 하는 말이든 어떠한 말이라도 좋다. 언제든 말해 줄 수 있는 내 옆 친구가 아닌, 교수님 혹은 선배님에게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진로 방향에 문 두드리기

나는 원래 약동학·약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제일 좋아하는 전공과목이었다. 그래서 나의 진로도 약동학·약리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공부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준비하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의 길을 두드리 볼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교수님과 같이 진행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두 번째 길이였다.

나는 여러 대학원 교수님과의 콘택트(Contact)도 했었고, 동시에 ‘비임상’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내가 ‘임상’ 관련 연구 과제도 진행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대

학원 진학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원을 간다는 생각만 고집했던 것 같기도 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많이 가는 분야, 직무를 보고 그쪽 분야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후배님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임상' 관련 직무만 알아봤고 전공과목과 관련된 직무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임상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임상시험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담당자이기도 하다. 그렇게 고집했던 대학원이라는 첫 번째 길이 아닌 두 번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인 것 같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줄 알고, 하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길을 열고 그중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에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CLD 수업을 잘 활용하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큰 중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의 직무는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업무인 만큼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잘 못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요점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정해진 타임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생명만큼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또 그 현대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창의융합 단과대 소속인 사람들은 모두 CLD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발표, 그리고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

는 시간들이 너무나 익숙할 것이고 익숙하게 될 것이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항상 누군가 함께 고민하고 누군가와 함께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렇기에 CLD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의견을 낼 줄 알고, 다른 팀원의 의견을 들어 줄 줄 알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적정선에서 다른 팀원의 말에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어느 곳에 가든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미리미리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만이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낼 줄 알았으면 좋겠다.

방학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대학 생활의 꽃은 바로 방학이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1, 2학년 때의 방학은 거의 노느라 정신없이 보낼 것이고, 3학년 때의 방학을 맞이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나의 스펙이 얼마나 쌓여 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는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실습을 나가서 경험을 쌓고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떠한 것이라도 시도하면 성공한 것이다. 끊임없이 있는 중간과 기말고사에 치였던 생활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방학이기에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우기는 쉬우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실천한 방학을 보냈다면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하지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후배님들을 위해 몇 가지 작성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아직 학과에서 인정하는 토익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단기간

에 토익 점수를 따는 것이 중요하다. 토익은 오래 가져갈수록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갖고 토익 하나만 단기간으로 공부하여 우선 점수를 따 놓아야 실습이든 어떤 경험이든 토익 점수를 안 딴 사람보다 접하긴 쉬워질 것이다. 공부를 잘하면 직장의 폭이 넓어지듯, 토익을 잘하면 내가 어떠한 것이든 경험해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격증이다. 꼭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어도 좋다. 워드, 엑셀 등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 요즘 어떤 회사를 가든 컴퓨터 활용 능력은 꼭 필요하다. 컴퓨터를 얼마나 어떻게 더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업무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사실 나도 어떠한 자격증을 따지 않고 졸업을 했다. 그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따기에는 시간이 많진 않다. 하지만 대학교 방학이라는 시간은 길기에 훨씬 더 배우고 자격증을 따기엔 수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빠른 시기에 실습을 나가는 것이다. 정말 빠르면 3월 여름방학부터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시기부터 실습을 나가게 되면 3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4학년 여름방학까지 3번의 실습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다. 다만 그 3번의 실습 기회 동안 각기 다른 직무를 경험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내가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 좋아하는 것이 실제로 직무를 해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습이 다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직접 몸소 느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위에 작성된 것을 실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좋은 실천 방법이 있다면 뭐든 좋다. 그 무엇이든 방학에 이뤄 낸다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성장했을 것이다.

좋은 마무리

대학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면서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 대학 생활만큼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시기도 대학 생활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오는 힘들이기에 4년이라는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 좋은 마무리로 4년을 마치고 사회생활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하는 마음이다.

PRIME창의융합대학 | 임상의약학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험하고
준비하기

LSK Global PS 김OO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졸업과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의 취업 스토리를 적어 본다. 임상의약학과 1기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먼저 업계에 취업한 선배들이 없어 업계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고, 취업 준비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하여 후배들은 업계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학과 생활은 곧 스펙이다

나는 임상시험연구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국내 최초 임상시험연구원을 양성하는 학과인 건양대학교 임상의약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입학 후엔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던 중 적극적인 학과 생활을 통해 여러 활동을 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2학년이 되면서 학과에 동아리가 없어 여러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던 나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즉 CRA의 필수 역량 중 하나인 '발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스피치 동아리를 만들어 새로 입학한 18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동아리를 꾸려 나갔다. 스피치 동아리에서 매주 1회 시간을 가져 임상시험 관련 이슈를 해

석하여 동아리원에게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발표 능력을 기르고, 청중은 임상시험 관련 이슈를 파악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임상시험 관련 여러 이슈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임상시험 관련 이슈를 매우 꾸준히 확인할 수 있었고, 취업을 한 지금도 관련 이슈를 꾸준히 찾아보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취업에 성공하면서 스피치 동아리 활동으로 발표 능력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관련 이슈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꼭 동아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팀플을 하며 발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스피치 동아리 활동을 1년간 진행하며 3학년 때는 동기들과 취업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 동아리 활동을 이어 나갔다. 동기들과 함께 취업하고 싶은 회사들을 골라 그 회사들의 연혁, 면접, 근 3년간의 이슈 상황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후 각자 이력서도 작성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기들과 모의 면접도 진행해 보며 취업 준비를 하였다. 모의 면접 시 여러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 덕분에 실제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에도 원활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써 보고 그에 대해 꼬리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스스로 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과만의 차별화 수업을 바탕으로 특별한 스펙 쌓기

건양대학교 임상의약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유사학과와 다르게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과정(Process)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CRO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CRO 모듈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모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보는 프로젝트 수업은 취업 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모의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3~4명의 팀원을 꾸려 임상시험 주제를 정하고, 관련 논문들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한 후,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해 보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임상시험을 성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지만, 교수님의 여러 피드백을 통하여 임상시험 성공이 중점이 아닌 어떻게 하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면접 시에도 면접관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모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봤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합격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수업을 통해 모의임상시험을 진행해 볼 수 없다면, 동기들과 모여 모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보거나 주제를 정해 임상시험계획서를 써 보는 등의 활동을 하며, 임상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차별화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

나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여러 활동과 토의를 통하여 스펙은 쌓을 수 있었지만, 실제 취업 준비 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라고 생각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 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쓰기가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성격의 장단점,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는 부분이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CRA에게 필요한 역량 중 어떤 점을 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이 약점이었으나 어떤 노력을 통해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작성하기가 어려웠다.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나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 물어보고, 스스로 마인드맵을 그려 보며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강점과 약점을 미리 파악하면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이다.

면접은 준비만이 답

면접을 보고 난 뒤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꼬리 질문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대답을 미리 적어 보고,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면접 질문들을 미리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대답도 적어 보고 했던 준비 과정들이 없었다면, 어려운 질문이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준비하고, 영어 인터뷰도 준비하고 암기하여 면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더불어 CRO에서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인 업계 용어 관련 질문(GCP가 무엇인지 아는 지? CRO의 풀네임이 무엇인지 아는지?), 임상시험 관련 질문(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CRA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 리스트를 뽑아 준비하였고, 학과에서 경험한 모의임상시험, CRO 연계 수업 등에 대하여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미리 답변을 준비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답변을 생각해 보고 실제로 입으로 말하는 연습까지 해 보며 실제 면접장에서 준비한 답변을 실수 없이 말할 수 있었고, 면접에서 큰 실수가 없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면접은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해 보고 실제로 말해 보는 연습이 중요하다. 내가 면접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은 ‘CRA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의임상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임상시험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CRA의 역량이 무엇인지?’, ‘자신의 어떠한 점이 CRA와 잘 맞다고 생각하는지?’, ‘영어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세요.’ 등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면접은 첫인상으로 많이 결정된다고 면접관님들께서 말씀하셨다.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웃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떨리는 마음에 표정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면접 준비에 중요한 팁이다.

자신감을 갖고 차근차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4학년 때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한 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막막함과 불안감이었다. 불안감이 커지니 ‘취업 준비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막상 자기소개서를 써 보고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 ‘4년 동안 준비한 걸 더 많이 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나와 같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일을 하고 싶은 확신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팀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끼는 점은 회사에서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력서에 들어갈 학점, 토익 성적,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하다. 스펙이 다른 동기들보다,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충분히 이력서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면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후배들에게 취업을 위해 해 주고 싶은 말은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계획해 보고 실제 실행해 보며 경험을 쌓고, 차근차근 취업을 위해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직 특별한 활동이 없더라도 자신의 강점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하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스스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

너무 취업만 준비하기보다는 힘들 땐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해소하고 지금을 즐기면서 생활하길 바라며, 임상약학과 후배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업계에서 만날 일을 기대하며 임상약학과 후배분들을 응원한다.